

유학이신공

S. D.

11

88

C

5

COR, 1-586



훈민정음

구세주강성일천팔백구십사년

조선국오백삼년갑오

DOHS
No 79164

훈의진언

예일장 하는님이 사람의 몸을 문드신강론

이히들아나 | 몇귀절말이잇서너희로더브러말하리니너희는즈세히드르
라너희더히를보는니이누 | 가문드러하늘에잇게하였는요하는님이시니
라너 | 능히더히를붓들겝는요능히못하는니라누 | 가더히를허공에두어
써러지지안게하는요하는님이시니라하는님이어디계시뇨던당에계시니
라던당은엇던곳이뇨던당은이히보다더높고더넓은곳이니라너희능히하
는님을보겝는요보지못하는니라하는님은능히너를보시는요보시는니라
너만보실뿐아니라싸에그득히잇는물건을다보시는니라하는님이처음에
일만가지물건을문드러홍상보호하시고또흔너희이히들을문드샤홍상보
호하시는니라너희몸이잇스니곳머리로브러말서지라너의손으로너의입
압출가리우고잇스면무숨괴운이잇서너의손에다닿침을알거시니이너의
숨쉬는괴운이아니나무론밥먹을때나잠잘때나설때나일시도숨쉬지아닐

때업스니이누 | 가네게이괴운을준줄아는뇨모도하는님이시니하는님이
너의입으로술취게하시고몸으로동하게하시느니라너의몸에새가잇스니
여기와다리와등과허리속에잇스며뼈밖의는살이잇고살속에피잇고피와
살밖의는가족이잇서의복흠갓하니더뼈와살과피와가족을합하여혼몸을
지엇느니라하늘아바님이너의게이몸을주셨스니다만원컨대너 | 흉상지
앙과병업슴이니라너의새가능히흔히지겟는뇨흔히지느니가스롭흔곳으
로조차떠러지거나혹슈레박회에늘니면모도흔히지느니라혹네가병이나
면너의피가점점말나다만혼장가족과새만남아잇느니라나 | 더병잇는
히를보매빨이몹시파리하여너의부대홍파갓지아니하니너의몸이도흔거
손원리하는님이보호하심이니만일하는님이일각이라도너를보호치아니
하시면너 | 반드시지난에빠져살논물에게족과살을데이며돌에머리를부
딛쳐써여지며밥을먹지못하며점점병이나몸이죽기에니르느니네가지금
능히너의몸을보호하여이런병이업게하겠는나너는능히못하느니반드시

하는 님 색 너를 보호 하심을 구할지니라 너 | 맛 당히 쓰러 날은 티 하는 님 색 구
하옵는 니 향상 나를 보호 하샤 나의 몸으로 하여 고통 병이나 지안 재 하 쇼셔 할라
너 | 이 곳 치 구 향면 반 드 시 너를 보호 하 시 리 라

대 이 장 모 천 이 으 히 를 스 랑 하 는 강 론

적은 으 히 들 아 나 | 임 의 너 희 게 이 몸 이 었 더 케 됨 을 말 할 지 라 다 시 말 하 노 니
처 음 에 너 | 이 곳 치 크 지 못 할 때 에 너 | 스스로 먹 지 못 하 고 스스로 넘 지 못 하
고 스스로 든 니 지 못 하 였 는 니 그 때 에 누가 너 를 품 고 안 으 며 너 를 먹 이 고 기 르
며 너 의 얼 골 을 씻 기 며 너 의 머 리 를 빗 기 며 너 의 의 복 을 닦 험 는 뇨 이 너 의 모 천
이 너 라 지 금 너 | 너 의 모 천 을 스 랑 하 는 뇨 스 랑 하 는 니 나 | 맛 당 히 스 랑 할 줄
을 아 노 라 누 | 네 게 너 의 모 천 을 주 어 하여 고통 이 곳 치 너 의 차 요 더 움 을 생각 하
며 너 의 주 리 고 비 부 름 을 생각 하 게 하 였 는 뇨 하 는 님 이 사 니 이 러 므 로 너 | 맛
당 히 하는 님 을 더 욱 스 랑 할 지 니 라 너 | 분 히 너 의 모 천 이 너 를 잘 티 접 하 는 줄
아 는 니 때 로 후 너 를 노 하 시 며 너 를 색 리 사 니 아 너 를 잘 티 접 함 이 아 니 나 이 네

가능히도 혼사 례를 비호지 못 할 가 념려 할 심이니 너 | 맛 당히 너의 모친의 이
히 다 혼은 정을 생각 하여 할 상 효도 할 고 공경 할 거시오 또 하늘에 계신하는 님
은 너 잇는 어는 디 방과 어는 때 던 지 모도 너 를 보 호 할 사 는 니 이 너 를 티 접 할 시
논은 해 가 너의 모친보다 더욱 크시니 이 러므로 너 | 맛 당히 하늘 아바 님의 온
혜 를 감 사 하며 또 너 를 불 상 히 너 이 심 을 구 할 라

데 삼 장 부 친 디 으 히 를 기 르 는 강 론

으 히 들 아 누 | 가 의 복 을 지 어 너 를 님 히 며 밥 을 지 어 너 를 먹 이 는 요 이 너 의 모
친 이 니 너 의 모 친 은 어 티 셔 돈 을 가 저 왔 는 요 너 의 부 친 이 주 신 바 | 니
라 너 의 부 친 은 어 티 셔 돈 을 가 저 왔 는 요 던 장 에 곡 식 을 심 어 바 람 불 때 나 비 올
때 나 더 운 심 을 흘 니 고 었 은 바 | 오 손 지 조 를 빼 여 괴 더 괴 친 신 만 고 할 야 었 은
바 | 오 장 스 를 할 여 남 편 부 편 에 강 에 쓰 고 바 다 를 지 나 었 은 바 | 니 라 그 었 은
바 돈 을 가 지 고 와 너 의 모 친 을 주 며 글 으 티 으 히 를 위 할 야 옷 술 지 어 님 히 고 음
식 을 사 먹 이 라 할 는 니 라 너 의 부 친 이 너 를 이 췌 치 티 접 할 니 너 | 너 의 부 친 을

사랑치아니라 사랑할 자니라나 | 호적은 의회 부친 죽은 자를 보니 그 장살기
 어려온지라 만일 너의 부친이 죽으면 너 | 또 호더 모양이 되리니 이런고로 너
 | 맛당히 하는 님께 너의 부친을 위하야 지양과 병이 업슴을 구하라 오랜 후 너
 의 부친이 세양을 보릴 때에 너 | 도록히 일 위 부친이던 당에 계시니 나 | 너를
 그르쳐 괴도 할 때에 님의 덕 우리 하늘에 계신 아바님이 라 하니 곳 너의 하늘에
 계신 일 위 부친이 니이 곳 하는 님 너의 아바님이 라 너의 하늘 아바님은 능히 죽
 으시능 요 죽지아나 하시능 니라 너를 사랑 하시능 요 사랑 하시능 니라 너 나 혼
 부친보다 너를 더 욕 사랑 하사 향상 너를 도라 보시고 너를 생각 하시며 너 | 쓰
 고져 하는 물건 주시고 이후에 너를 텨던 당으로 불너 흠씩 거 하시능 니라 하는
 님이 또 호너의 부친을 사랑 하심은 곳 너의 부친의 하늘 아바님도 되심이 니라
 의회 아너 | 지금 부모 | 있어서 너를 보호 하며 방이 있어서 네 머 무르며 의복이 있
 서 네가 남으며 음식이 있어서 네가 먹으며 물이 있어서 네가 마시며 불이 있어서 네가
 더우며 자리 있어서 네가 자며 너 불이 있어서 네가 덥으며 신테에 지양과 질병이 업

훈의진언

남

스며피운과숨이스며짐이업스니하늘아바님이너를위하샤이르치큰은혜
를주시니너ㅣ맛당히저세히괴룩하야넋지말지니라

데스장령훈강론

개가몸이잇는뇨잇는니라하는님이더롤일개몸을주시니새와살과혈막과
가족이잇는니라개의몸이너의몸과호호뇨호호지아니호니라개가다리몇치
뇨네히니라너ㅣ역지가잇는뇨역지들이잇는니라개가역지잇는뇨개는역
지업고또호손도업는니라개의가족이너와호호뇨호호지아니호니라개의족에
는털이잇고너는업는니라개의몸이너와호호뇨호호지아니호니라개의다리
가몇치뇨들이니라도또호다리들이잇스나다만늑의다리가너와호호지아니
호고더의발이또호너와호호지아니호니더의발은이발톱이요늑은나래가잇
스터너는업고늑의입이또호너와호호지아니호니더는니가업는니라늑의몸
이비룩너와호호지아니호터그러나또호몸이라닐음은새와살과혈막과가족
이잇숨이나라파리가몸이잇는뇨더거손몸과여섯다리가잇스며또호두나

래가 았은 사곳흐니 너의 몸은 일덤도 나와가지아니하니라 누가 더 깨와 괴
 와 뉘과 파리의 몸을 주었는뇨 하는님이 주셨는니라 뉘과 깨는 하는님이 샬
 홀 줄을 아는뇨 뉘과 깨는 물과 소와 양으로 더 브러여러가지 증승은도 모지하
 는님이 샬 홀 줄을 아지 못하는니라 잊지아지 못하는뇨 말 홀 줄을 모름이뇨
 말 홀 줄을 모름이 아니라 더 희는 생각을 못함이니라 잊지 생각을 못하는뇨 텡
 혼이 업슴이 아니라 하는님이 여러 증승을 문드시고 텡 혼은 주시지아니하시
 나라 너 희는 텡 혼이 있는뇨 있는니라 너의 몸속에 텡 혼이 있는고로 너는 능히
 하는님을 생각하여 알며 또 홀 샬 홀 줄을 아는니 이 텡 혼은 곳하는님이 너를
 주신바니라 사름이 능히 텡 혼의 무슴 모양을 보는뇨 능히 보지 못하는니 다
 만하는님이 능히 텡 혼을 보시고 또 텡 혼의 생각을 하는바 모든 소정을 다 알으
 심이사름의 외면 몸만 보고 그속에 있는의 소는 보지 못함은 지아니하시니라
 너의 몸이 편함이 도로 혀너의 텡 혼이 편함이니 너의 텡 혼은 너의 몸보다 더욱
 긴하니라 잊지 텡 혼이 몸보다 더욱 긴하뇨 몸은 죽으되 텡 혼은 죽지아니함이

혼의 잔인

스

542
니라 더 짐승들은 죽는 거시 등불 켜지는 것 같고 하여야 모거시나 도모지 업서 저
더 사름이 만일 죽으면 몸은 무덤 속에 장사하나 령혼은 무덤 속에 있지 아니하
고 영원히 살아 있는 니라 그 장적은 어린 어히도 다 령혼이 있는 니라 할로는 보
니 거리에 혼적은 관을 노코 몇 사름이 울며 그 속에 있는 거시 못적은 어히의 산
테라 이 어히의 령혼이 이 관 속에 있겠는 노 령혼은 거기 있지 아니하고 곳하는
님 계신 곳으로 갖는 니라 하는 님 되셔 너의 게 죽지 아니 할는 령혼을 주셨스니
너 맛당히 사례 할코 또 혼 맛당히 벌어 구하더 하는 님 되 비옵는 니 우리 죽을
때에 우리 신례는 다 시 흠으로 도라 가도 우리 령혼은 불너 기리던 당에 서하는
님 피 흘려 잇게 할 쇼셔 흘지 니라

예오 장런 스감론

하는 님이런 당에 게서 극히 크고 극히 존귀 할 위에 안자 게서 니다 만던 당에 만
계실 뿐 아니라 못신 령 할 사 게시 지 아니 할 곳이 업서 하 놀은 그 안즈신 위오 싸
흔 그 발노 흐신 등상이 니라이 외에 허다 할런 스잇스니 또 혼신 령 할 나 더 외 빛

처히 빛보다 만치 못하여 하는 님의 빛은 빛과 같지 못하고 하는 님과 같지
 무소부지 하지 못하여 하는 님의 빛은 빛과 같지 못하여 하는 님이 내셔는 님이
 내셔는 아니라 텨스의 빛은 빛과 같지 못하여 하는 님이 주신 거시 님이
 님이 주신 거시 아니라 텨들이 흥상하는 님을 찬미하는 거손하는 님이 극히 크시
 고 극히 존귀하시 고 극히 존비하시니라 텨스는 하늘에 있어서 병도 들지 아니
 하며 죽지도 아니하며 텨들은 의곡비창함이 업고 마음은 흥상 쾌활하니라 이
 텨스들은 하늘아바님이 부리시는 요 텨스는 본리하는 님의 부리시는 자니
 라 텨들이 하늘아바님씩스 환할 때에 무슨 것버하지 아님이 있는 님 것버하지
 아님이 업는니라 텨스는 그 장착한 지라 하는 님을 그 장스 량하며 하는 님의 분부
 를 그 장순종하여 힘하는니라

예루장 마귀 강론

하는 님이 어는 때 브터 하늘 우희 계셔는 요 처음이 업스시 고 지연이 계시니라
 히도 업슬 때에 하는 님이 임의 문저 계셔스며 텨스도 업슬 때에 하는 님 임의 문

호인간

호

저 께섯스니 하느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오 하느님은 이 만물의 처
음이 라 만물을 도모지 하느님이 문드시고 또 허다 혼련스들을 사람이 능히 해
지 못 할 거슬 다 문드시니 문드실 때 에는 만물이 모도 또 흐며 모도 쾌 할 듯 더니
련스 몇 처 죄 에 범함이 잇서 무 음 에 하느님을 사랑치 안코 교만함이 발 할 야 하
느님의 뜻을 거스리니 라 더 희 죄 에 범 할 듯스니 하느님이 더 희 를 허락 할 여 려
당 에 잇게 하 셴느뇨 허락지 아니 하시코 더 희 를 모라 내치시니 이 허다 혼 마 귀
된지 라 그 중에 일개 사탄 이라 하느니라 | 잇서 마 귀 의 슈 두 | 니 더 | 능히 려 당
에 니 르느뇨 능히 니 르지 못 하느니라 지금 더 | 하느님을 결 우 위 사 를 을 르
쳐 어 괴 여 진 일을 지으며 사 를 으 로 하 여 고통 더 를 섬겨 디 옥 에 드러 가 게 하고 사
름 으 로 하 여 고통 하느님을 섬겨 착한 일을 짓지 못 하게 하며 사 를 이 려 상 스 복 을
엇을 가 두 려 워 하느니라 비 록 더 | 이 려 능 간 이 잇스나 하느님의 능 간 을 더 의
게 비 하 면 더 옥 크시니 이 러 모 로 너 | 반 드 사 하느님 색 보 호 하 시 기 를 구 하 고
마 귀 가 너 를 유혹 하 야 디 옥 에 드러 가 게 말 지 너 라

데칠장 세계강론데일단

우리들이어티머물너잇는요세계우희머물너잇스니머리우흔하늘이오발
아래는싸히오또나무와푸른풀이잇스니하늘은큰장드리운것갓고풀은도
흔털자리갓고히는축불갓고여우리게분은빛출나타내여빛최니우리세상
에머물너잇슴이갓장도흐니라싸흔문들째에하는님이어티게섯는요턴당
에게시고허다흔턴스논두루들너잇고또하는님의아들이잇서하는님과파홍
떡게섯는니라하는님의아들은이누시요이예수그리쓰도시니하늘아
바님으로더브러흔모양으로크샤성부와성자근본흔위하는님이시라피
차갑히스랑하시니라하는님이엇더케세계를문드섯는요하는님이전능
하신고로다만흔귀절말노빠엇더케되라하시매곳되엿는니닐은샤티맛당
히빛치잇스라하시니곳봄은빛치잇는지라만일이사름이면단명코능히흔
마티말노이물건을문드러내지못하시라하는님이또푸른귀운을지으시고
또물을문드서니물이우희잇스면구름이되고는려오면비가되는나라하는

584
님이 또 크고 깊흔디 방을 문드시니 꽃더 바다 이라 바다에 흥상물결이 소사 오
고 소사가 되능히 넘쳐나 오지 못하느니라 하는님이 또 혼마른싸 흘문드러사
롭으로 하여곰 그우회 머물너 살게 하시니라

데 팔장 세계강론데이 단

하는님이 싸 흘문드러일우서며 싸우회 무슴물건이 잇섯느뇨 업섯느뇨 업섯
느니라 싸 흘지으신 후에 하는님이 날으샤 되맛 당히물건이 싱하라 하시매 곳
싱하니 나모가 잇고 나모우회 푸른거슨님사귀며 버들나모와 느릅나모와 늦
티나모 | 잇고 열음잇는티나모와 싹붉은나모와 굴나모와 북송아나모와 살
구나모와 외얏나모와 무화과나모와 밋허다흔나모 | 잇고 또 향긋로운 처소
| 잇스니 미나리와 계죽와 락치와 파와 마늘과 부초와 허다흔 처소일 흙이 잇
고 또 던장에 심은논 거슨벼와 출벼와 팟과 보리와 피와 기장이니 이여섯가지
곡식외에 또 일뵈도 양곡식이 잇고 또 화초를 싱하야 내사니 각각 모양과 빛치
잇서 봄에는 영춘화 잇고 여름에는 연화가 잇고 가을에는 계화가 잇고 겨울에

는 미화가잇스며 세계에 흥상 열니는 월계화가잇고 이외에 또 허다 할 뜻이 잇
 는 나라 이나 모와 처소와 곡식과 화초 다 셋가지 물건은 모도 이싸에서 싱하
 거시니 싸에서 싱하는 나모와 뜻이 2장 보기도 흐매이 곳하는 님이 텨스 와 흥
 쟁보시논바 1타그 때에 사롭이 세계에 업스니라 또 희와 들을 지어 하 놀우 회
 잇게 하 시코 하여 곰북은 빛출노와 세계우 희북히 빛최여 잇게 하 고 디구가
 상도라 히를 향하는 때가 빅주요 히를 등지논 디가 어 두온 밤이라 들이 더 별노
 더 브러 밤에 북은 빛치 현출하느니라 히가 크노 크지아니 하 노 극히 크고 극히
 북으니 세상 사롭이 보기를 2장 적게 줄은 디구에서 극히 멀니 잇는 연고 1오
 또 히가 썩러 지지아니 하는 거 손하는 님의 능간으로 붓드심이니라 들은 엇지
 히와 크치 북지 못하노 들은 하는 님이 밤을 맛게 하 시니 밤은 이자 논 때라 너 무
 북으면 자지 못하느니라 하 놀우 희별을 헤겜는 노 사롭은 능히 헤지 못하 고 오
 직 홀노 하는 님이 능히 헤시며 또 흥그 일 흥스지 다 알으시느니라 사롭이 더 히
 와 들과 별과 텨디 만물을 보면 무음에 생각 건대 반드시 하는 님이 하 나히 오 들

훈의진언

철

이아님을알지나라비록하는님이이곳치마히업시크시나오허려세상에적
교적은으히를향상스랑하시며적교적은물건을또향상숨히샤보호하시
느니라

매구장 세계강론예삼단

하는님이따우희여러가지물건을돈드러일우신중에성물이업더니후에성
물을돈드러일우시나라닐은샤티물속에고기와자라와새우와게가마득하
라하시니곳나서물속에마득하니큰것도잇고적은것도잇스티마장큰거슨
일흠이고래나라고기의몸은링흔거시오다리도업고소리도지르지못하고
발도못하는나라또나는거슨돈드시니이식라나모우희깃드려잇고나때잇
고렐은각식이잇스니썩썩리논렐이누르고공작은이마장보기묘흐니머리
우희긴렐이잇고썩리에덤덤이썩빛치잇서눈즈위모양고퍼면흔부취모
양곳하시일빅것이가즈런하니라이여러식중에엇던식은소리극히듯기묘
흐며또임무의소리논더욱듯기묘흐니라또물우희가고오는몇가지서잇스

니게우와물오리又흐류 | 니라흐나라에흐놓흔시잇스니사롬의괴와又고
 나래심히길지아니하여날지못호고다만펼적펼적뛰는거시물보다더욱새
 르며또놓흔미잇스니극히큰지라무어시던지발노웅괴여먹기를잘하며더
 의굴혈은그장놓흔디방에잇고그장합이잇서날면능히극름속에니르느니
 라식중에그장진실흐거시니비듬이니더의우는소리는다른식와又지안코
 다만쑥쑥쑥하느니라하다흐식일흙을이로다말홀수업스며이외에또버
 러지가잇스니싸속으로조차나오고물노조차나오지아니하니라적은버러
 지는개암이니싸속에잇고싸으로괴여오고괴여가며또덜잇는버러지가잇
 서구를거리며괴여둔니는거시오또나는버러지는쌀별과나뵤라쌀별은뜻
 진익을싸다가쌀을짓고나뵤는나래가보기에극히도코또고흔분이나래우
 희잇느니라후에하느님이또기르느즘승을지으시니몸에덜이잇고굽이네
 히잇스니물과소와양과개와괴는이향상보는바 | 요또다룸죄잇스니나무
 가지우희잇서뛰여오고뛰여가며또룩기가잇스니굴을과고드러잇스며산

흐은진언

말

양은 능히 그 장 높은 산우 흐로든 니며 사슴이라 하는 거손 그 썰이나 모가지코
하여 흑닐곰가지 흑여 툭가지며 또 스즈라 하는 거손 털빛치누른 거시만코 그
장 힘이 잇스며 그 장 무셔운 거손 이범이니 그 털이 흰 줄기는 누르코 또 흰 줄기
는 검은니라 기르는 짐승 중에 그 장 큰 거손 코키리오 개는 그 장 령 리하고 양은
그 장 진실하니라 하는 님이 더고 기와 쇠와 버러지와 괴는 짐승과 기록는 각양
물건을 다 몬드스 터 다만 몸만 잇고 령 혼은 잇지 안케 하시며 더 희 동하시며 또 숨
쉬게 하시니라 하는 님이 더 희 먹을 거술 주샤 그 성명을 기록시니 하는 님이 더
희게 이코치 권고 하시느니라

데십 장 아당히 왜 두사 롭 강론

하는 님이 일만 가지 물건을 다 몬드시고 그 후에 또 흠으로 뼈흔 놋사 롭의 몸을
몬드시고 괴운으로 그 속에 불매 곳 령 혼이 잇서 싱할하고 또 혼 총명이 잇서 하
는 님의 소정을 다 알더라 처음 흐 놋사 롭을 무어시라 하는 노이당이 라하니라
아당은 이하는 님을 사랑하는 지라 하는 님이 더로 하여곰 그 장 요 혼 동산에 머

물너잇게하시니 동산속에 허다흐나 무에 허다흐 실패 1 열년지라 동산일홈
 은 위던이니라 하는님이 모든식의 증승을 분부하시야 당잇는 곳으로 모도 오
 게하시고 아당드려닐의사 터간 검하여 뜻터로 더 희일홈을 주라 하시니 아당
 이 늦 늦치일홈을 주매 허다흐 식외고기와 증승을 모도 아당의 깨끗겨쥬장하
 게하시고닐의사 터더 동산속에 잇서 조심하여 허다흐나 무를 간수하라 하시
 니 하는님이 아당을 그 장위하시터 오직 홀노 아당의 짝홀자 1 업숨은 모도 이
 식외 증승이 더로 더 브러홈 쉼말하 지 못홀이라 이 러홈으로 하는님이 아당으
 로 허여곰 잠을 들게하시고 더의 가리터흐나 홀썬여내고 고기로 뼈가리터썬
 여낸 구녕을 메여 못치고 그 뼈여낸 가리터로 녀인 할나 홀문드러 더니 아당이
 허여 홀 늦 녀인이 잇숨을 보고 못더의 뼈로 지은 녀인 인줄 아논지라 이 러므로
 그 녀인을 극히 사랑하고 못일홈을 주어 하 왜라 하시니 라던디 만물을 몇날에 지
 었는뇨 옛식에 지으셨는니 짓기 료 못치시고 날 헛재 날에 논쉬섯스니 곳이 안
 식일이니라 하늘에 잇는 천사들이 하는님을 찬미하고 예수 그리스도 1 하는

훈의전

538

구

안
님의 아들이 또 혼 그 장 깃거 함심은 아당하 왜를 사랑함심이러라 우리 엿지하
는님이런디 만물을 지으심을 아는 분이 성경에 있스니 성경은 이하는님의 주
신바 성서이니라

데십일장 죄악의 처음 강론

아당하 왜 두사람이 동산속에 있서 극히 화목함요 극히 쾌락함은하는님이더
외게이도 혼곳을 주심이라 흥상하는님을 찬미함고하는님이더희로되하여
말씀하시면 그 장즐겨드르며 무슴두려워할거시업더니 다만 혼가지실과잇
스니하는님이더희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허벽지말나너ㅣ 먹으면 반드시 죽
으리라 하시니 아당하 왜 무슴속에하는님의 명령을 좃고져하는지라이실과
를먹지아니함더니 혼악함마귀사탄이라 함노자ㅣ 잇서하는님을위함노
지라 아당하 왜를속여 악함일을 짓고더를섬기게함니라 더ㅣ 혼씩을성각함
더아당하 왜를유인함여이실과를먹게함리라 함고 동산속에니러갈새에
혼비암이되어가서하 왜가그나 무것히잇슴을보고 무르되엇지이도 혼실과

를 먹지 아니하는 요하와 빌의 이 동산 안희 잇는 나무 우희 실과를 나니 모도
 가히 먹으되 다만 이 혼 나무에 실과는 하는님이 먹기를 금하심은 먹으면 사망
 에 빠질가 하심이니라 비암이 빌의 너니 반드사 죽지 아니리니 하는님이 너
 니 먹은 후에 네 눈이 열녀 능히 선악을 분히 분별함이 더와 방불할 줄을 알미니
 라 하와 곳머리를 들어 실과 나무를 따서 혼 번 보매 실노 보기요 먹기 또 혼
 도 흘듯 혼지라 손으로 쓰는려 먹고 또 아당을 주어 먹게 하였더니 그 후에 곳악
 혼 무음이 성하야 하는님을 사랑치 아니하는지라 오래지 아니하여 하는님의
 성음을 듣고 동산 속에 잇서 놀남을 이기지 못하여 나무 속으로 드러가 피하되
 다만 하는님이 더를 보심은 하는님이 이곳 곳이 못보시논터가 엮는 연고이라
 하는님이 아당드려 무르시더니 어는 곳에 잇는 요하 시니 아당이 터 답하되
 나니 하는님의 성음을 드르매 즈연 두려운 지라 이르므로 숨었는 이다 하는님
 이 빌의 사되 나니 너드려 먹지 말나 하는 실과를 먹었는 요아당이 터 답하되 하
 는님이 주신 동모녀인이 쓰주어 먹게 하니 이다 하는님이 하와드려 빌의 사되

혼의 진언

십

너 | 먹숨일을 하였는뇨 왜 날이 티비 암디 나를 유인 하야 먹게 하니 이 다
니 일 노인 하야 하는 님이 마귀를 노 하시고 날이 샐터니 | 반드서 저주를 받으
리로 다 하시고 인 하야 아 당하 왜를 저주 하야 굶이 샐터 더 희 몸이 흠으로 문
거시 니 도로 흠으로 도라 가 리라 하시고 몇개 텨스 를 명 하야 칼을 가지 고 더 희
를 그 동산에서 쫓쳐 벗치고 텨스 로 동산 문을 직히 여 더 희 를 다시 동산에 들지
못 하게 하시 니 라

예심이 장 하는 님의 아들 강론

가 석 하 다 아 당 하 왜 여 하는 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락 원에 쫓겨나 와 동산 속도
흔디 방에 머므 르지 못 하 고 허 다 흐 료 흔 싯 출 보 지 못 하 고 허 다 흐 료 흔 싯 파 를
먹 지 못 하니 이 는 아 당 이 하는 님의 명령을 범함 이 라 이 러 므 로 하는 님이 아 당
드 러 날 으 샐터니 | 임의 녀 인의 말을 듯고 나 | 먹지 말 나 흐 싯 파 를 먹었스니
이 싸에 서 네가 저주 당 흠을 인 하야 니 | 티 터 로 고 하야 겨우 먹숨을 건을 잊
어 먹 을 거시 오가 식 나무가 널 노인 하야 날 거시 오 싸에 서 나 는 나 를 을 먹 으 터

짐이 홀나 낫세 그 득하 여야 겨우 먹을 거시니 죽기까지 할갈 곳치아 못 할 거시
 오너의 몸은 나 | 흠을 가져 문든 거시니 반드시 흠속으로 도라 가리라 하시니
 아당이 이 모양으로 고로움을 받음은 더 | 하는님의 말씀을 영종치아 님이 오
 또 할가 지더 옥도치아 낫일이 있스니 다만 이 몸만 고로움을 받을 썩아 니라 더
 의 본심이 문혀져 하는님을 사랑하야 공경치아 니 할고도로 혀 불션 할 일을 지
 으니 이러므로 하는님이 너의 믿음속까지 편안치 못하게 하시니 라 만일 하는
 님이 더 희를 불상히 너이 시지아 니 할면 너의 조손까지도 모지 디옥으로 는 될
 거시로 티다 만 하는님은 믿음이지 의 할 신지라 참아 이 못치 별 할 지아 니 시고
 아당 후티에 할령 혼구 할 쥬를 허락 하샤 아당과 그 조손을 위 할 여 할 번 죽게 할
 리라 하시더 니 후에 과연 하는님의 아들이 친히 세계 우희니 르샤 하는님의 분
 부티로 그 영화로운 위를 브리고 그 사랑 하는 아바니와 텨스를 썩나 필경 심조
 가우희서 죽어 중인의 죄를 구속 할 엿스니 우리는 아당 조손이라 모도 죄에 범
 할 사름이니 만일 예수 | 이 세상 에 니 르러 우리를 티신 할야 할 번 죽지아 니 할

혼의 전언
 88888

십일

옛스면우리령혼이반드서디옥으로갈거시로되다만우리들이긋치가런히
녀이시니우리맛당히하는님과예수를사랑할거시오맛당히말하되하는님
이우리죄를위하여독성영조로하여곰고난을받게할심을감사하는이다하
고또맛당히말하기를쥬예수나는즐겨세상에니르샤우리톨되신하여흔번
죽으심을감사하는이다할지니라다만아당으로브터예수강세하실새서지
스천여년이로되하늘아바님께서던당에게서그허락하신말씀을넋지아니
하시니가히하는님이우리를사랑하시논은정이김흠을알지니라

예심삼장 마리아강론

아당하왜악한사람이되여하는님을사랑치아니하니하는님이가히써더들
을요혼미음을주시겟는요가히써주시는나라던당우희성령이께서능히사
람의미음을감동하여악을변하여선하게하시는니우리는모도이죄에범한
사람이라할노성령이능히우리미음을감동하여우리로하여곰착한사람이
되게하시는니만일하는님이성령을주샤우리미음속에있게하시면우리들

이디옥에느리지아니호리니반드시날마다하는님썩빌어성령을주샤우리
 무음을감동하게할지니라애당해왜허다호즈너ㅣ있고또허다호즈손이있
 스니이세상무수호사람이라두사람죽은후여러히에하는님이즈괴아들을
 이세상에보내여적은으히되여나기를다른적은으히와즈치나게하시니예
 수의모친은일홈이마리아ㅣ니이착호사람이라그장하는님을사랑하더니
 호로는호련스가마리아의집에니르니마리아ㅣ북히빛는련스를보고놀남
 율이괴지못할거늘련스ㅣ닐으티무셔워말나하는님이너를사랑하샤널노
 호여곰적은으히호나홀낫케하시리니곳이하는님의아들이라일홈을가히
 예수ㅣ라호야더로호여곰세상사람을구원케하라마리아ㅣ련스의말을듯
 고괴이히녀이고극히깃거하더라련스ㅣ도로련당으로올나가니마리아ㅣ
 하는님을찬미홈은더를이긋치사랑하심이라라마리아ㅣ닐으티무음에하
 는님과령혼구호를찬미하고또호깃거호노라홈은더ㅣ북히예수가더의
 령혼을구원할실줄을알미러라

대십사장 예수제상에나신강론

마리아의 혼인당 혼남인은 곳 약슬이니 그 장의 잇는 사름이라 마리아ㅣ 더점
항기를 그 장 잘 항더니 마리아ㅣ 으히를 낫기 전에 혼왕이 잇서 령을 느려여러
백성으로 하여 공일 흠을 척에 기록하여 부제를 거두기에 편케 항라 항나 마리아
ㅣ 약슬과 혼색 돈을 가지고 저 집을 떠나 그 조상의 디방에 나르러 일 흠을
호적에 기록 항러 가니 그 성일 흠은 백리 항이라 성 중 주막에 나르러 머므를 곳
이 업논 지라 부득히 마구안에서 머므르더니 마리아ㅣ 그 안회 잇서 으히를 나
흐니 뒤일상이 업논 지라 으히를 물 구유에 뉘이고 곱히 안자 보호 항며 마리아
ㅣ 그 으히를 극히 사랑 항더라

대십오장 양치논자강론

예수ㅣ 탄성 항신 그 날 밤에 백리 항들 가온대 몇낫 양치논자ㅣ 잇스니 더 회 무
숨일 노 밤에 자지 아니 항는 노 조 심 항야 양을 직 희고 스저와 일 회 음을 막 음이
나라 우리 디방에 논스저 업고 비록 일 회 논 잇스나 만치 아니 항 더 백리 항에

14
논일희와 스즈가 만히 잇는 나라 양치는 자니 붉은 빛치 빛최며 텨스나 타남을
보고 크게 무셔 위하니 텨스니 날은 티 무셔 위 말나나니 너희게도 혼복음을 보
하야 모든 백성으로 하야 곰크게 깃뵈음을 알게 함이로라 오늘대 벽의 고을에 너
희 백성을 위하야 세상을 구원하실 주를 탄성하엿스니 이곳크리스도니라 너
희가 서더어 린은 희를 뵈에 싸물 구유에 누임을 보리니 이거시 증거니라 하
고 말을 마치매 든득 천만 텨병이 텨스로 출새하는 님을 찬양하야 날은 티 우흐
로 영화는 하는 님새로도라 보내고 아래로 화평함은 사름마다 은총을 받으리
라 하고 텨스가 떠나하늘 노을나가는 지라 양치는 자니 서로 날은 티 우리 백리
항에 가하는 님새서 뵈이 신일을 보러라 하고 급히 가 그곳에 이르러 과연 어 린
은 희마 구에 잇고 마리아와 약슬이 곁히 잇서 조심하야 보호함을 보고 즉시 텨
스의 말흔 바일 노빠고 하니 듯는 자니 귀이 희 녀이더라

데심록장 박스강론

박스수인이 동방으로 조차와 백리항디방에 이르니 길이 극히 먼저라 더희크

리스도나 신 줄만 알고 다만 어느 곳에 가츠 질 줄을 모르더니 문득 하는님이
하늘 우희 홀 별을 나타내 여더 희를 인도 하시니 더 희 곳 동방으로 조차 몸을 나
러 레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와 하는님의 아들께 드리려 흠은 그날
왕 되심을 위함이러라 갈새에 그 별을 쓰라가 백리향 고을에 와 어린히 있는
곳에 니르러 별이 그 우희 머물거늘 박사나 보고 깃뿔을이 괴지 못하야 믿음에
급히 하는님의 아들을 보고 저하 여히 있는 집에 드러가 예수를 보고 엎드려
절하고 이하는님의 아 들님을 칭송하며 또 날이 이 곳왕이라 하고 레물을가
저예수께 드리더라

데십칠장 희를왕강론

이때에 환그 장악한 인군이잇스니 일흠은 회를이니 그잇는디 방이 백리향과
멀지아니하더라 희를이 백리향 고을에 일개어린히 하나매 허다한 사름이 왕
이라 칭함을듯고 믿음에 생각하되 유대국에즈괴외에또 다른왕이잇슴을엇
지용납하리오하야 죽이기를 생각하되 백리향에잇는 줄알되 다만 백리

15
 향교을에허다흐여러으히잇스리니엇지찾기용이흐며또만일빅성이다에
 수를사랑흐면즐거회를을위하야말하지아니라하고이에악호도음을내
 여빅리향디경에잇는여러어린으히를죽이면그가온디반드시에수잇스
 리라하더라하는님이회를의하고저하느일을알으시고약슬이잘때에던스
 를보내여현몽하야닐으디니라나으히와으히의어마나를다리고의금으로
 도망하야가라대개회를이모든으히를다쳐자죽이려하느니라약슬이니러
 나으히를다리고그밤에이금으로도망하야가거괴있더니회를이허다흐사
 람을보내여빅리향에가스방에어린으히를쳐죽일셔여러군스|사람의
 집에드러가어린으히잇스면곳죽이니허다흐녀인들이더희으히들죽임받
 음으로인하야울기를말지아나흐나사람이거리우희잇서다만녀인이숨히
 근절히우는소리만드름은그으히들죽음으로인함이라하느님이예수를
 보호하샤그어려서죽음을원치아나흐시논교로이금으로가있게하심이라
 라그후회를왕이죽으매약슬이잘때에하는님이또던스를보내샤현몽하야

닐으터 내려나 어린으희와 그모친을 다리고 이석렬고 올노가라호니 대개 그
어린으희를 해코져호던 회를이 임의 죽음이러라 약슬이 이에 마리아와 예수
를 다리고 유대에 이르러나 살륙고울에 머므니 약슬은 본티 목슈라 예수
약슬과 마리아의 말을 순종호더라 예수다른으희와 못호되 다만 죄악이 없
고 그 부모를 극진히 사랑호되 다만 모음의 향상하늘아 바님이 그아바님됨을
생각호더라 하는님이 예수를 사랑호시고 사롬이 또호스 람호은 예수가 모음
이 착호고 또호스 람겸공함을 인함이러라 후에 장대호매 사롬이 더욱 사랑호
더라

대십팔장 마귀의 시험호던 강론

예수 | 장성호샤 도를 전호시기 전에 뵈들에 나르샤 스십일을 금식호시고 산
즘승과 혼가지로 계시더니 뉘가 와 예수와 혼쳐 말호고져호니 이누 | 노하는
님도 아니오런스도 아니오사 롬도 아니오이 마귀의 거수사탄이니나 | 그거
시무슴 모양인 줄은 모르노라더 | 에수를 시험호여 악호일을 짓고하는님말

숨을 어긋게 하고 저 홀신더 | 예수 가 주리심을 알고 곳 말하되 너 | 만일 하는
 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할라 예수 | 되 답하시되 사 롱의 성 명
 이 홀노 떡을 의탁 할 수 업고 다만 하는 님의 말 숨을 의 지 하여 사 는 니 라 사 람이
 또 예수를 다 리고 놓 혼 연으 희 니 르 러 말하되 만일 너 | 하는 님의 아 들이 면 가
 히 여긋서 뛰 여 는 리 라 경에 말하엿스되 하는 님이 너 | 말 이 돌에 부딪 칠 가
 야 던 스 를 보 내 여 손 으 로 너 를 붓 들 게 흔 다 하 니 라 예수 | 되 답 하시되 주 | 너
 의 하는 님을 시험 함이 가 치 아 니 하 니 라 사 람이 또 예수를 다 리고 2 장 놓 혼 산
 우 희 을 나 세 상 허 다 혼 영 화 와 부 귀 를 뵈 여 곁 으 터 너 | 만 일 즐 겨 내 게 절 하 면
 곳 더 것 으 로 너 를 주 리 라 예수 | 되 답 하시되 사 람은 가 라 맛 당 히 하 놀 아 바 님
 너 의 주 를 절 하 여 홀 노 섬 김 이 가 하 니 라 하시니 이 는 예수 | 당 하 여 보 신 일 이
 오 말 하 신 일 이 라 너 | 보 라 예수 | 즐 겨 마 귀 의 게 절 하지 아 니 하시 고 다 만 하
 는 님 께 만 절 하시 며 하는 님 스 랑 하 심 을 세 상 물 건 을 스 랑 함 보 다 더 욱 긴 하 게
 하시 고 아 당 하 왜 는 사 람의 말 을 듯 고 하는 님의 명 령 을 어긋 엿 스되 예수 는 즐

겨사탄의 말을 뜻지 아니 할 시 고 하는 님의 뜻 만 조치 시 니 죄 를 범 할 이 는 아 당
이 오 하 늘 아 바 님 을 효 순 할 는 이 는 이 예 수 께 니 라 이 예 사 탄 이 가 요 려 스 가 하
늘 노 조 차 는 러 와 예 수 를 복 스 할 니 라 사 탄 은 적 은 으 히 가 불 선 훈 일 짓 기 를 꺾
장 요 하 할 는 니 만 일 스 즈 가 오 면 다 만 능 히 너 의 몸 만 먹 으 터 사 탄 이 오 면 너 의
몸 파 령 훈 석 지 흠 쟈 디 옥 에 는 리 지 는 니 라 사 탄 은 너 를 위 워 할 니 너 의 원 슈 오
하 는 님 은 너 를 스 랑 할 서 니 너 의 하 늘 아 바 님 이 시 니 라 하 는 님 의 능 간 은 사 탄
보 다 크 시 니 이 러 흠 으 로 너 께 쥬 의 롭 들 영 할 여 사 탄 의 말 을 밋 지 말 고 다 시 하 는
님 쟈 너 를 도 와 마 귀 의 속 임 을 면 케 할 심 을 구 할 라

데 심 구 장 십 이 문 도 강 론

예 수 께 하 는 님 의 도 리 를 가 져 여 러 사 람 의 개 전 할 실 식 향 상 훈 디 방 예 계 시 지
아 니 할 고 쟈 로 회 당 에 도 계 시 고 쟈 로 산 우 희 도 계 시 며 쟈 로 밧 가 온 대 도 계 시
며 후 리 우 희 계 시 며 후 바 다 꺾 에 계 시 고 오 늘 여 귀 계 시 고 리 일 더 귀 계 시 더 니
할 로 논 가 리 리 회 변 에 니 르 러 힘 할 서 다 가 두 사 람 을 보 니 이 는 곳 서 문 피 득 과

그 동성 안득 렬 이라 그 물을 바다에 더저고기를 잡거늘 예수 께 글으샤 더너희
 눈나를 싸라오라나 너희게 사롬엇는 거슬고기엇는 것갓치 흠을 그르치리
 라 피득과 안득 렬 이 일절 가진물건을 다 버리고예수를 좃더라 항하야 멀니아
 니가셔 예수 께 또 두사롬을 보시니 곳이 셔비태의아들아 각과 약한이라 더의
 아비와 흠색 띠에서 그물을 깃거늘 예수 께 부르시니 두사롬이 못비를 떠나아
 비와 삭군을 작별하고예수를 좃더라 예수 께 그의 스로 문도네 흘갈희시고
 후에 또 몇슬갈희시니 모도 열들이라 이 몇촌곳비려과 파다라매와 다마와 마
 태와 또 아룩비의아들아 각과 달태라 부르는 른비와 예라 부르는 셔문과 이쓰
 카료사롬 유대라 예수 께 향상이 열두 스도를 그르치시고 또던국의도리를
 강론하시니 데즈들이 깃거예수의 그르치심을 듯고 그 장예수를 사랑하니
 러므로예수를 쥬 께라닐크르며예수가 문도를 사랑함이 문도의 사랑함보다
 더하시니 이 러므로 더희를 봉우라닐크르시니라 예수 께 향상이 문도를 거
 느리시고 의변에 이르러도 리를 강론하시니 문도들은 본티이 죄잇는 사롬이

훈의진언

십륙

라우리와 웃혔다 다만 예수 | 성령을 주어 더 희미함을 감동하여 다 변하여 착
훈사름이 되게 하였으나 그러하나 예수의 완전함은 잊지 못하니 그러도
로 후잇다 감분괴를 내 고 그릇함이 있더라

예이심장 예수 | 처음 힘신과 디 힘겨강론

항로는 가리리 가나에 혼인하는 집이 잇스매 예수의 모친이 참여하고 예수와
예즈 | 또 혼청함을 넘어 자리에 나가나 술이 다 하였는지라 예수 | 거기서
항여섯이 잇는 줄을 알고 종드려 날으샤 디이 석항에 물을 부어 크게 항라이에
물을 치우니 거의 넘치게 되더라 곧으샤 디 즉시 잔치 맛혼사름의 게보내라 항
시매 이에 가져가니 잔치 맛혼사름이 맛보니 물이 변하여 술이 되엿더라 어
로 온 줄을 알지 못하였오직 그 좋은 아는지라 신랑드려 날으 디 술먹는 법은 문
져도 혼술을 내 오고 킁이 열마 먹은 후에는 잔술을 내 오거늘 이제 엿지도 혼술
을 지금서 지어 드려주는 듯하더라

예이심장 예수 허다 혼과 이 혼 힘신강론

예수 물노써 술을 문든 후에 허다한 기이 혼일을 행하여 여러 병을 다스리게 하
 시니 쇼경을 보게 하고 병어리를 말하게 하고 파리 혼자를 부대하게 하더니 허
 다한 병인이 모도 허압희나 아와 곳침을 구할 것 같을 예수 더 희들을 보내지 아
 니 하고 모도 늦게 하신지라 쇼경 드러닐은 사되 너 보라 하시니 죽시 보며 귀
 먹어 리와 병어리 잇서 곳침을 구할 것 같을 예수 손가락을 펴 귀 속을 찌시고 출
 을 비얏 하혀 낫히 바르고 하늘을 우러러 한숨 쉬고 글은 사되 너 가히 입이 열
 니라 하시니 병어리 곳말하며 귀가 열니라 하시니 귀 먹어 리 곳뚫더라 야로 살
 령에 혼 못잇스니 일흠은 벅스더라 다섯 횡량이 잇서 그 안희 병든 자 쇼경 파안
 존방이와 파리 혼자 만흐되 다만 문져 못에 드러가는 사름은 무숨 병이던지
 다 늦는지라 거기 병든 지 삼십 팔년 된 자 오히려 그 속에 잇는지라 예수 그
 병든 지 오 램을 알으시고 인하여 무르시되 너 늦고져 하는나 병든 자 글은
 티 주여 물동 흘 때에 붓드러 못에 내려 주는 사름이 업고 겨우 못에 끼여 가면
 임의 다른 사름이 문져 드러 가는 이다 예수 널은 사되 너 내려나 너 자 리

를 가지고 가라다 | 못나려나 매몸이 상쾌함을 써다 르니 이는 예수더의게
운을 주심이라 또 하로는 예수 회당에 잇서 사름을 구르치실시 혼빈궁혼녀
인이 곱스등이 병으로 능히 나려서 지못하느니라 예수 | 손으로 문지시며 날
으샤 티너이녀인아나 | 너를 못치고져 하노라 그녀인의 등이 죽시곳은 지라
그녀인이 하는님을 찬미하더라 예수 | 능히 죽은 사름을 불너 살게하시니 이
런일은 병 못치는 티비하면 더욱 괴이 혼지라 하로는 예수 | 길에 힘하실시 허
다 혼사름이 쓰라 음은 그 괴이 혼히적을 보고 또 강론하시느도 리를 듯요져
이러라 예수 | 성문 압희셔 보시니 사름이 관을 메고 장스하러 가느티 혼파부
| 관을 쓰라 가며 의곡하니 이는 못그 죽은 자의 모친이 오죽은 자는 못그 파부
의외아들이라 예수 | 그우는 소리를 듯고 못불상이 녀여 말슴하샤 티을지 말
나 하시고 손으로 관우 흘문지며 글으샤 티 젊은 사름아너 | 나려나라 하시니
못나려나 안자서 쓰말을 하느니라 예수 | 그 사름을 그 모친의게 주시니 허다
흔빅성이 이알을 보고 모도의 심하교이상이 녀이더라

데이십이장 죄열 있는 사롬과 문도의 강론

예수 | 엇지 할 여제상에 니르러 오섯는 요우리령 혼 구 할 기를 위 할 여 오시 니
라 하는 님이 엇지 할 야 우리령 혼을 디옥에 는 린다 할섯는 요우리 무리가 사롬
사롬이 모도 죄에 범 혼 연고 | 니라 만일 사롬이 저기 죄를 회기 할 면 예수 | 즐
겨 더 를 용서 할 실 거시오 사롬이 저기 죄를 회기 치아니 할 면 예수 | 문득 더 를
용서 치아니 할 시는 니라 나 | 지 금 할 마 디 니 아 기 할 리라 할 교 만 할 사롬이 있
서 즐겨 죄를 뉘웃고 허물을 곳치 지아니 할 고 할 녀인이 잇서 더 | 죄를 회기 할
엇스니 교 만 할 사롬이 예수 를 청 할 여 밥을 먹을 식 법 디로 아나 할 는 지라 유래
국 법은 각이 집에 니르 면 그 입을 맛 초며 물을 주어 밥을 씻게 할 고 기 록 으 로 그
머 리 우 희 바 르 는 니 이 교 만 할 사롬은 예수 를 청 할 야 가고 할 가 지 도 할 지 아 니
할 디 그 죄에 범 혼 녀 인은 예수 | 이 사롬의 집에 계 심을 알고 곳 함에 향 기 로 온
기 록을 담 아 가 지 고 예수 뒤 희 셔서 믿음에 허 다 할 죄를 생각 할 고 또 예수 | 능
히 더 의 죄를 용서 할 실 줄 아 는 지라 믿음에 예수 를 사랑 할 며 눈물을 흘 니 고 예

훈의 진언

십팔

수의 발압희업되여 그 머리털노 발을 닦고 합에 기름을 가져 예수 의 발에 바른
고 또 입으로 그 발을 맞초니 그 교만흔 사롬이 이녀인의 향논 모양을 보고 곧 분
괴를 내 거늘 예수 | 그 교만흔 사롬 드러닐 : 샹되 너는 물도 가져다가 나의 발
을 씻게 아니 향되 이녀인은 눈물 노나의 발을 씻스며 너는 나의 입도 맞초지 아
니 향되 이녀인은 입을 가져나의 발을 맞초며 너는 기름을 가져나의 머리에 도
바르지 아니 향거늘 이녀인은 기름을 가져나의 발에 바른 다 향시니 이녀인은
예수를 사랑 향며 저괴 죄를 회기 향고 교만흔 사롬은 예수를 사랑치 아니 향매
예수 | 당면 향야 갓 초척 망 향시 고 또 녀인을 티 향야 널 : 샹되 너의 죄를 임의
용서 향였 다 향시니 예수 | 이 모양으로 회기 향논 사롬을 위로 향심을 보코 교
만흔 사롬과 여러 죄들이 모도 분괴를 내니라 만일 너 회적은 : 히들 도 즐겨 너
의 죄를 회기 향면 예수 | 또 흔 즐겨 너를 용서 할 실 거시오 만일 너 희스스로 잘
난 테 향면 예수 | 또 흔 즐겨 너를 용서 치 아니 향시리니 예수 노 교만흔 사롬을
표 하 아니 향심 이니라

데이십삼장 바다에 풍랑 강론

호로논 예수 | 문도로더 브러호비안에게서 더니 풍랑이 크게 니러 물결이 못
선창안서 지쳐드러오논 지라 문도들이 놀남을 이기지 못하야 모도 빠져 죽을
가할 더니 예수는 홀노 잠이 드러 바람 파물 소리 그 장심 하디혀지 아니 하시논
지라 문도들이 압회와 썬여 날으티 주여 주여 었지 우리를 도라보시지 아니시
는 니 잇가 예수 | 곧 바람을 꾸지즈시고 바다를 티하야 날으샤 더 안정하라
시니 그 바람이 곳곳코 물결이 또 호안정호지라 문도들 티하야 날으샤 더
의 무리논 었지 이긋치 두려워하논 노 었지 나를 밋지 아니하논 노 못사롬이 모
도 놀나서로 무르디 더 무슴사롬이 관티 바람 파바다이 모도 순종하논 노 할 더
라

데이십삼장 처녀 구할 호강론

호비솔 호논 사롬이 일개 독녀 잇스니 겨우 열두살이라 병을 었어 거의 죽게 된
지라 예수 | 능히 병을 곳치심을 듯고 와 예수 압희 부르가서 곳쳐 주심을 구하

호의 진언

십구

거늘 예수 께 곳홈셔가실셔그집이멀지안케가매그벼슬호는사롬의스환이
마조오며글은티녀조궤임의죽엇스니션성님을슈고롬게말나호거늘 예수
궤글은샤티넘려호지말고다만나를밋으면너의쌀을구원호리라호고 예수
궤그쳐녀의아바니를다리시고또피득과약한과아각으로홈셔그집에드러
가시니쳐녀의신례상우희잇고집속에허다호사롬이잇서동곡홈은그쳐녀
의죽음을인호이러라 예수 궤닐은시티올지말나이쳐녀 궤죽지안코잔다호
시니이말숨을호심은더를다시살니려호심이러라겻히여러사롬들이모도
예수의말숨을링쇼홈은 예수 궤능히더를살니심을밋지아님이러라 예수 궤
닐은시티이사롬은다가라호시고문을닷으니집속에다만쳐녀의부모와피
득과약한과아각만잇는지라 예수 궤손으로그쳐녀의손을문지며닐은샤티
니러나라호시니곳니러나거늘 예수 궤또더의부모를티호여닐은시티가하
더의게무숨먹을거슬주라호시니더희들이깃봄을이과지못호며겻히사롬
들이또호심분과이히녀이더라

데이십오장 예수 십륙과 요기를 호와 오천인을 먹인 강론

호번은 예수 십륙과 요기를 호와 오천인을 먹인 강론
도리를 강론하시듯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받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코져 하심인 줄을 말하시니 백성이 아츰 보러 저를 기쁘지
드룬지라 문도들이 예수를 따라 여닐 때에 가느꼈스매 청컨대 백성을 다
더 보내소서 예수 십륙과 요기를 호와 오천인을 먹인 강론
더 주림을 충고 길을 가려 하느 줄 알으시고 더 희를 호터 보내지 아니시고 문도
드러닐 때에 사디너 희는 가히 무엇을 가져와 더 희를 먹게 하라 문도들이
더 우리여 귀잇는 거시다 만 다섯 개씩과 두 개 고기뿐이로 소이다 예수 십
사디 내게로 가져오고 이 사람들을 분부하여 풀우희 안게 하라 하시니 대강이
오천 사람이 오녀 인파어린 희들은 수가 업더라 예수 십륙과 요기를 가지
고 하늘을 우러러 빌으시고 떡을 떼여 문도를 주시며 날 때에 사디가 가져다 모든
사람들을 주어 먹게 하라 하시니 문도와 모든 사람이 다 배부르게 먹고 부스럭

이눔은 거슬 주어 열 두 광주리에 치우고 그 사름들을 훑터 보내시니 지금 생각
건대 더 다섯 개 석과 두 개 고기로 오천 남은 사름을 먹이고 남은 거시 열 두 광주
리가 초스니 이런 일을 단덩코 사름은 능히 행치 못할 거시어 늘 예수ㅣ 능히 이
일을 하시니 사름이 가히 생각건대 이하는 남의 아들이 심이 일덤의 후이 업스
리라

데 이십륙장 예수 의 조비 할 신 믿음 강론

예수의 데 조는 있다 감 조비 할 믿음 이 적으티 오적 예수 는 항상 조비 할 믿음 이
잇스시니 할로는 할녀 인이 잇스티 이 식결 백성이 아니라 예수 썬와 말 할 터 더
일개 녀 조가 잇서 저 금 조장 몹 쓸 병을 었었는 이다 할니 예수ㅣ 처음 에는 할 말
도 더 답지 아니 할시니 문도가 조비 치 못 할 믿음 으로 예수 썬 날으티 이녀 인이
우리 뒤에서 부러 지 조니 청 권 대 더 를 보내 쇼셔 예수ㅣ 날으샤 터 하는 남이나
물 보내 심은 특별 이 이 식결 집에 도 망 할 양을 구 하고 저 홀 이니라 그 녀 인이 예
수의 발 압 희 업 터 여 날으티 주 여 청 권 대 나 를 도와 주 쇼셔 할니 예수ㅣ 불 상 히

녀이시고또그밋는모음을시험코져하시이에닐으샤디으히먹을씩을개를
 주는거시을치아니하시니라그부인이닐으디쥬의말씀하심이그장을흐나다
 만쥬인의락스밋히홀닌부스럭이를개도가히엇어먹을가하는이다예수
 닐으샤디너니임의나를극진히밋으니가히너의원을일우리라하시니예수
 이그녀스물개개비하여맛당히도흔곳을엇지못하시리라하시거늘그부녀도
 로혀닐으디비록맛당히도흔곳은엇지못하시라도다만다른사람이쓰코음
 은복을일덤이라도엇을가바라나가히이녀스가예수의말씀을밋고쫓는줄
 을알지라이러므로집에도라가그딸이느흔거슬보니라또하로는엇던사람
 이어린으히들을거느리고예수씨니르거늘문도들이또스비치못함모음을
 두고더희들을쭈지져드러음을허락지아니하는지라예수이그모양을보시
 고깃거하시아니하시문도드러닐으샤디더적은으히를허락하여드러오게
 하라던국에잇는이가또하이곳하시코손을드러어린으히머리우희
 언스고하는님씩복을느려주심을빌고그으히를드러안으시니더예수씨안

훈의전언

이십일

기연은 회복이 큰지라 반드시오 순하고 겸비하고 서로 믿어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도 또한 더 희를 사랑하시리니 너도 보라 이희들은 곧 예수의 양이 오예
수는 요혼목인이라 이희들 죽을 때에 예수도 반드시오 거느리고 텅당으로
올나가시리라

예이십칠장 주의기도문강론

예수도 세상에 계시고 사랑하늘에 계시신 아버지님을 생각하시니
하느님께서 기도하시더니 하늘로 예수도 오심을 못치시매 문도도
청컨대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소서 하늘에 예수도
닐으샤 티우리 하늘에 계시신 아버지님 이름이 거룩하심이나
나라히 림을 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처럼 따르시도 일우
여지이다 오늘 날 우리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게
죄를 사하여 주는 것 못치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우리를 흉악
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잇스옵는

이다 아멘이 오치하라 하시니 예수 마르쳐 주신 기도문이 마장 길고요 하니
 다만 어린 오희들이 뜻을 명백히 알기 어려운지라 가히 다시 주세히히 석하여
 너희로 하여금 뜻게 할 노라 우리 하늘에 계신 아바님이라 흠은 무슴 뜻이 노우
 리가 여괴셔 하는 일을 불너 아바님이라 흠은 하는 님 섹셔 모든 사름의 아바님
 이 되심을 인 흠이니 하는 님 섹셔 텨만 민을 도라 보샤 보호 함심이 인간 아바
 니가 너희 지식들을 도라 보고 보호 함심이 니라 아바님 일 흠이 기록 하
 실이 니라 나시 다 흠은 무슴 뜻이 노 하는 님 일 흠은 근본 기록 하샤 마장 공 변되
 시고 마장 정결 하샤 일 호도 요치 아닌 곳이 업스시되 다만 세상 사름이 공경 하
 여 두리지 아니 하고 롭혀 절 하지 아니 하니 이 러므로 하늘 아바님 섹 빌어 사름
 의 무음을 감화 하샤 사름 마다 하는 님 섹셔 기록 하신 줄을 알고 공경 하게 하면
 곳 하늘 아바님 일 흠 기록 하심 이 니라 아바님 나라 히 림 흠을 시 다 흠
 은 무슴 뜻이 노 나라는 곳 하는 님 계신 디 방이니 지 금 세상 사름이 마귀를 섬기
 는 자 만 혼 자라 이 는 곳 마귀의 나라 히 라 만 일 세상 사름이 도 모지 하는 님의

후의 진언

이삼이

말씀을 영종하면 이는 곳하는님의 나라 하림함심이니라 아바님 뜻이 하늘에
서 처럼 써에서 도일우다 함은 무스 뜻이 노련 당에 있는 던스와 선지와 성인들
이 항나도하는님의 뜻을 어귀고하는님의 말씀을 영종치아니함는이가 업스
니 만열 세상사람이 도모지하는님의 말씀을 영종하면 이곳 뜻을 힘함이 짜히
셔도 하늘에서와 같음이니라 오늘날 날우리게 일용 할 양식을 주옵시다 함은 무
스 뜻이 노사람이 항로를 먹지 못함면 든득 비 굶는니이 먹는 양식은 하늘아
바님이 우리를 주어 생명을 기르게 함심이니 다만 사람이 오늘 세상에 있스나
릭일엇지 될 줄을 모르는지라 이러므로 항로 살면 다만 가히 항로 먹을 거슬
구 할지라 만히 구함면 이는 탐심이 오망녕되히 구함면 유익함이 업는니라 우
리가 우리게 득죄한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고 치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다 함은
무스 뜻이 노우리가 어려서 버러 늙기까지 말하고 일함는 거시 모도 죄에 범함
는 말이 오죄에 범함는 일이라 저귀로논이 말과 일노 범함 죄를 능히 속량치 못
함는 지라 이러므로 하늘아바님께 구함야 용사함심을 구함이니 다만 하는님

씨우리 죄를 용사함심을 구할진대 우리도 반드시 우리게 득죄한 자를 용사할
 진니 만일 우리가 즐거움을 용사치 아니하면 엇지 하는 님께서 즐거우리록 용
 사하시리오 우리가 시험에 들지말게 하옵시고 다만 우리를 흉악에서 구하옵
 쇼서 함은 무슴 뜻이뇨 시험하는 일은 반드시 잇는 거시니 비유컨대 한덩이 금
 이 잇스면 반드시 단련하여야 그도요 그음을 아는 니그러나 사름이 한번 시험
 할노 일을 만나면 궁할 때 거짓말과 탐심이 잇기 쉽고 부귀할 때 스욕과 교만함
 이 잇기 쉬우며 그 외에 또 허다불선한 일과 불선한 사름과 불선한 디방이 잇서
 할상 우리를 유혹하여 서로 밋는 믿음 이 견고치 못하여 죄악에 드러 감을 면치
 못하게 하는 니 이러므로 하는 님께서 우리를 도와 평안케 하시고 우리로 할
 여금이런 티 들지말게 함심을 구할지니라 흉악은 곳마귀니 마귀는 여러가지
 술법이 잇서 우리를 유인하여 디욕에 드러가게 하는 니라 그러나 하는 님의 능
 간은 마귀보다 더욱 크신 지라 이러므로 하는 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말
 게 하심만 구할 뿐 아니라 또 한마귀가 온대서 우리를 건져내심을 구할지니

라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님의게 영원히 잇스옵는이다 흠은 무슴 뜻
이뇨 하늘에 잇는 것과 싸에 잇는 것과 공중에 잇는 것과 지난 것과 지금 잇는 것
과 장러스 것과 또 허다성인 과 션지와 관장 과 백성들이 하는 일을 공경하여 찬
미하기를 영원 무궁히 흠이 오아 맨은 이것들이 다 실상이고 저 흠이니라

데 이십팔장 예수 | 미리 죽을 날을 아신 강론

예수 | 미리 이후에 악한 사롬의게 잡혀가서 처고 비웃고 십자가 우희 못박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삼일만에 다시 살아나 실줄을 알으시고 인하여 문도들을
더하여 날으시되 나 | 허다한 사롬의게 룡육을 받고 또 더의 죽임을 날엇다가
삼일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니 문도들이 예수를 사랑하여 그 죽음을 원치
아니 하는지라 피득이 예수를 붓드러 머추며 날으되 우리 주여 이런일이 주께
림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는이다 하시니 예수 | 이런말듯기를 원치 아니함은
반드시 하는님의 뜻을 조차 사롬을 더신하여 십자가 우희 못박혀 죽어야 바야
흐로 가히 세상 사롬의 령혼을 구원할 줄을 알으심이러라 예수 죽이코저 할

는 사 례 들 은 이 야 로 살 링 에 있 는 지 라 예 수 1 몇 번 을 야 로 살 링 에 가 서 복 음 을
강 론 하 시 티 일 됨 죄 악 이 업 스 시 거 늘 사 례 이 무 슴 일 노 예 수 를 위 워 하 는 노 그
사 례 들 은 본 리 거 좃 착 훈 테 하 는 자 1 라 사 례 이 더 희 를 승 순 호 을 즐 겨 하 는 지
라 예 수 1 더 희 들 은 이 요 혼 사 례 이 아 니 오 거 좃 착 훈 테 하 는 사 례 인 줄 을 알 으
시 고 다 만 더 희 를 승 순 처 아 닌 썬 아 니 라 도 로 혀 더 희 모 음 속 에 하 지 를 말 슴 하
여 닌 으 사 티 너 희 거 좃 착 훈 테 하 는 사 례 들 아 외 면 은 양 과 궤 치 순 하 고 안 은 식
랑 과 궤 치 훈 독 하 다 하 시 고 또 닌 으 시 티 너 희 무 리 는 맛 당 히 죄 를 회 기 하 라 하
시 니 이 러 므 로 이 여 러 교 만 훈 사 례 들 이 예 수 를 위 워 하 야 죽 이 고 저 하 며 돌 노
차 고 저 하 되 다 만 예 수 의 죽 을 날 이 니 르 지 아 니 하 였 스 매 더 희 들 가 온 대 로 든
니 시 티 더 희 맛 나 지 못 하 더 라 예 수 1 야 로 살 링 을 썬 나 멀 니 가 게 시 다 가 후 에
죽 을 날 이 니 르 매 다 시 야 로 살 링 으 로 올 나 오 시 니 라

데 이 십 구 장 랍 살 로 강 론

예 수 1 데 즈 들 과 홈 썬 훈 곳 에 게 시 더 니 몇 개 흥 악 훈 사 례 이 잇 서 예 수 를 죽 이

고져하나 다만 어느 곳에 계신지 알지 못하고 홀노 그 때 즈들과 몇개 벗이 있서
예수 계신 곳을 알더라 흔 벗이 있스니 일흠은 랍살로라 두 누의 있스되 혼나 혼
마다 요 혼나 혼마리아니 더 형 데 혼 곳에 잇고 또 예수 를 사랑하니 예수
또 혼 더 회 를 사랑하사 항상 서로 왕 리 하며 복 음 을 강 론 하여 더 희 로 하여 금 듯
게 하 시 니 마 다 예수 를 청 하여 더 접 홀 시 마 리 아 그 발 아래 안 자 복 음 을 듯
더라 그 후에 랍살로 그 장 어 려 온 병 을 앓 으 매 마 다 와 마 리 아 예수 능 히
곳 처 실 줄 알고 사 롬 을 보 내 여 청 하 거 늘 예수 랍살로 병 들 들 드 르 시 고 즈
뜻 잇 들 을 더 머 물 르 시 고 아 니 가 심 은 더 의 죽 기 를 기 드 려 가 셔 다 시 살 게 하여
능 간 을 나 타 내 고 저 하 심 이 러 니 랍살로 의 병 이 날 노 중 하여 필 경 죽 으 니 그 벗
들 이 퇴 를 가 저 그 신 데 를 렴 하여 무 덤 속 에 장 스 하 고 큰 돌 을 가 저 다 가 무 덤 을
덥 혀 더 니 장 스 흔 제 나 홀 만 에 마 다 예수 오 심 을 듯 고 나 가 영 접 하여 날
뒤 주 여 만 일 이 왕 여 귀 계 셴 더 면 나 의 동 심 이 죽 지 아 니 하 였 스 리 이 다 예수
닐으 시 더 더 를 반 드 시 살 나 라 마 다 예수 지금 살 니 실 줄 은 생각 지 못 하고

날으되나 | 세계마즈막날만인이다시살때에더 | 또흔반드시살아을줄을
 아는이다하고급히집으로도라가마리아와여러벗들이잇서울물보고마다
 | 마리아를티호여숯히말호티션성이오신다호니마리아 | 이말을듯고급
 히니러나가예수를볼시그벗들이다스라나오더라마리아 | 방성대곡호며
 예수를보고썩러날으되쥬여만일여괴계섯던들의동성이죽지아니호였
 스리이다예수 | 마리아그벗들의을를보시고한식호시며불상흔모음이발
 호샤날으샤되너희랍살로를어는곳에장스호였는요모도날으되쥬논와보
 쇼셔호거늘예수 | 가셔무덤을보시고곳눈에눈물을흘니시며무덤압희갓
 가히가보시니이무덤은일개골이오골문을큰돌노덥혔거늘예수 | 날으샤
 되이돌을굴녀내라호시니마다 | 싱각건대예수 | 랍살로를보고져호시논
 줄알고날으되지금죽은제임의나홀이지난지라죽임에서내웁시나는이다
 호거늘예수 | 날으샤되나 | 너의게밋음이잇스면가히하는님의영광을보
 리라날으지아니호였는나호시니그사름들이그돌을곳굴녀내거늘예수 |

호의진언

이십호

머리를 들고 날으샤 디아바님 임의 나를 드르시니 감사함 읊는 이 다니 | 아바
 님이 향양 나를 드르시느 줄을 아나이다 하시니 허다한 사름들이 보고 예수께
 서 엿지코져 하시느 줄을 모르더라 예수 | 크게 소리 함 여 날으샤 디랍살로는
 나오라 하시니 랍살로 | 비록 죽었스나 한번 예수의 성음을 듯고 곳나오니 손
 과 발에 뵈가 엿히이고 머리에 수건이 싸잇느니라 예수 | 날으샤 디 푸러 주어
 더로 함 여 금오게 함 라그 누의들이 동성의 열골을 보고 반가움을 이기지 못함
 며 모도 예수를 감사함 며 그 여러 보던 차림들이 모도 괴이히 녀이고 또 맛더라

예삼십장 예수께서 야로살림에 나가신 강론

예수를 위함 함는 허다한 사름이 예수 | 랍살로 살니 심을 듯고 더욱 위함 야
 말함 디 만일이 사름을 죽이지 아니함 면 세상 사름이 모도 더를 밋으리라 함 디
 라 예수 | 그 뜻을 알으시고 그곳을 떠나 유대사 사름과 함께 아니함 시니 너희
 들이 오고 가며 초차 맛나지 못함 더라 예수 | 향양 유대사 사름을 떠나 심은 본
 디 원함 시느 뜻이 아니오 세상에 오신 뜻은 다만 우리를 디 신함 야 한번 죽기를

위하심이 나다 만 죽을 괴약이니 르지 아니 할야는 가히 유대 사 롱을 썬 나 사 고
 죽을 괴약이니 르면 다시 유대에 니 르시 리니 이 러므로 데 즈 틀 티 할 여 닐 으 시
 티 나 1 지 금 야 로 살 링 에 가 셔 더 희 롱 육 과 채 적 으 로 침 을 밧 고 또 심 즈 가 우 희
 못 박 혀 다 가 삼 일 만 에 다 시 살 니 라 할 시 니 데 즈 들 이 이 말 을 듯 고 춤 지 못 할 여
 어 티 던 지 예 수 가 시 는 곳 을 데 즈 들 이 흠 씌 가 려 할 더 라 예 수 1 야 로 살 링 으 로
 가 성 에 서 멀 지 아 닌 곳 에 니 르 샬 문 도 드 려 닐 으 샬 티 나 1 성 에 나 아 갈 시 나 귀
 를 득 고 가 껏 다 할 시 니 예 수 1 본 리 나 귀 업 고 흥 상 든 니 실 썬 에 거 러 가 고 거 러
 오 시 더 니 이 썬 에 누 1 즐 겨 나 귀 를 빌 니 리 오 예 수 1 두 문 도 를 보 내 시 며 닐 으
 샬 티 너 희 멀 니 아 니 가 셔 할 나 귀 를 일 개 적 은 나 귀 와 흠 썬 매 여 잇 슴 을 보 리 니
 너 희 는 푸 러 스 을 고 오 티 만 일 사 롱 이 잇 서 못 거 든 너 희 말 할 티 쥬 썬 썬 고 저
 할 다 할 면 더 1 반 드 시 즐 겨 너 를 주 리 라 문 도 들 이 이 말 슴 을 듯 고 곳 가 니 과 연
 일 개 나 귀 를 매 여 잇 거 늘 곳 가 셔 풀 녀 할 니 할 사 롱 이 닐 으 티 무 슴 일 노 나 귀 를
 푸 는 뇨 문 도 1 닐 으 티 쥬 1 쓰 고 저 할 시 는 니 라 할 니 그 사 롱 이 즐 겨 스 을 고 가

라 할 거늘 문도 | 나 귀를 스올고 예수께서 나 귀를 들으시고
 예수로 티우니 야로 살림으로 조차오는 사람이 예수로 보매 전에 예수 | 랍살
 로를 살니 신일을 듯고 보았는지라 사롬 사람이 칭찬하고 후황 데라 부르는 이
 도잇스며 더 회웃슬 버셔 길 우희 퍼공경하는 이 도잇스며 후나 무가 지를 썩거
 싸우희 퍼공경하는 이 도잇고 성연에 드러 갈 때에 또 허다한 사람이 거리우희 잇
 서 찬미하는 이 도잇고 성연에 나 르매 또 어린의 히 들 찬미하는 이 교만
 한 사람이 예수로 위워하는 자 | 어린의 히 들 찬미함을 듯고 즐겨 아니 할야 예
 수로 티우여 날의 터너 | 더 사롬들의 하는 말을 듯는 요하니 예수 | 도로 허더
 희를 칭망 할야 곧의 사 터 경에 날은 말이나 | 장 초젓 먹는 어린의 히 입으로 완
 전히 찬미함을 밧으리 라 할였스니 너 희 늙지 못 할였스나

예삼십일장 야로 살림 성연 강론

나 | 다 서너 회게 이 성연이 무슴 모양임을 말 할리라 이 성연은 야로 살림 성가
 온대 잇스니 집이 극히 크고 짓기를 심분보기도 제흔지라 낮이면 상상대문을

열어 두어 빅성들이 드러가하는 님찌 기도하게 하더라 문도들이 예수와 함께
 야로 살팅에 잇서 자조던에 니르더니 눈먼자와 슈종다리 된자 니르러 오거
 늘자수 더 회를 모도 곳치시고 또 더 회와 흘셔도 리를 강론하시니 믿음으로써
 듯는 자도 잇고 믿음으로써 안는 자도 잇스며 또 일등 흉악하고 교만 흉사름
 들은 던에 니르러 말하되 예수를 업수히 녀이며 또 살해코져 하니 예수 더들
 의 의소를 알으시고 밤이면 성에서 나가 감남산 것히 빅다니 촌에 가자고 아츰
 에도로 성던에 니르러 복음을 강론하시니 그 흉악한 사름들이 예수를 잡아 죽
 이고져 하되 빅성들이 란을 지을가 두려 감히 잡지 못하고 빅성업술새를 기드
 려다시 잡기를 썩하더라

예삼십이장 유대강론

예수 데즈 열들이 잇스니 열하나 혼예수 를 사랑하고 오직 하나히 예수 를 스
 랑치 아니하니 그 일홈은 유대라 말노는 거짓예수 를 사랑하되 믿음으로 논춤
 스 랑치 아니하니 더는 이마귀와 흘 모양이니 예수 유대의 엇더 혼사름인 줄

훈의진언

이십칠

을 모르셨는뇨 아셨는 나라 다만 유대를 의면으로 보면 예수를 극히 사랑하
 것 못하되 믿음은 그 장은 전을 사랑하야 홍상은 전만기를 생각하니 이는 탐심
 만흔도적이라 여러 데 주의은 전전 터를 모도 유대를 주어 밋게하니 유대 있다
 감전 터에 은 전을 스스로 이집어 내여 쓰니 문도들은 도 모지 모르되 오직 예수
 썬서 알으시더라 하로는 허다한 악한 사람이 예수 의원 슈이라 흠씩 모도 허
 안젓거늘 유대 그 사름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고 저하는 줄 알고 나아가 그 사름
 들 두려우르되 너희 나를은 저얼 마나 주겠는뇨 나 예수를 잡아 너희를 주리
 라 그 사름들이 날으되 삼십량은 저를 주리라 하니 일조차 유대 회를 숨혀
 예수 팔기를 생각하니 예수의 원슈들이 개개 이 깃버하더라 유대 예수를 잡고
 저함을 문도들은 모도 모로되 홀로 예수는 알으시니 이는 예수 더의 믿음 속
 에 있는 의스를 다 보아 밤이나 낮이나 더의 하는 일을 예수 도 모지 다 알으시
 터 다만 문도들을 터하여 저피야는 말을 아나 하시더라

대삼십삼장 절일 잔치 예비 좁과 유대 강론

유대국에큰절기잇스니일홈은넘는절이라이절기에예수ㅣ장차사롬의모
 해홈을밧으실줄을알으시고문도와홈씩음식을먹고저항여피득과약한을
 티항여닐으시티너희가서절기잔치를비항라우리가서먹고저항노라두
 사롬이닐으티어는곳에가예비항리잇가홈은예수씨셔야로살림에집이업
 숨이러라다만예수는능히집을구항여엇을줄을알으시논지라이러므로피
 득과약한을티항여닐으샤티너희나아가면길에서훈사롬이손에물병들고
 가논거슬맛나리너희는더틀씩라가그집에너르러그쥬인을티항여말항
 티션씩셔너의게각방을무러절기잔치를문도로더브러먹고저항다항면
 더ㅣ장차너희게일간큰루방을빌너주리라피득과약한이야로살림에너르
 러과연예수의말숨항시던티로다맛난지라씩과포도쥬와또여러가지물건
 을그일간큰루방에두어절기잔치예비항고예수ㅣ저를때에문도를다리
 고그집에너르러루방에올나열두문도로홈씩먹을때에예수ㅣ닐으샤티너
 ㅣ실노너희게닐으노너희중에나를팔아악인의게붓칠쟈ㅣ잇는나라에

저도 모도 장근심하여 각각 날으되 내가 그 팔자니 잇가하니 다만 예수는 명백히 말씀하시니 그러예수의 장스랑하는데 저약한이그는치를알고 예수씨 무려 글으되 주의 말씀하시니 자논이누니 잇가 예수 글으샤되 나와 홀찌 손을그릇에노코나 음식을주어먹는자니 곳기라하시고 석을떼여 탕에잠거이쓰카리웃유대서문의아들을주시니 유대가이 음식을받은후로 사탄이그몸속에잇더라 예수닐으샤되 너의하고저하는일을셀니가 할라 하시니 자리를곳치하사름이도모지이 무슴의스니 줄을알지 못하고 유대가 돈을맛흔고로혹싱각하기를예수씨셔너의게잔치에쓸음식을사라하심인가하고혹빈궁하사름을쥬급하라하심인가하고다만더 악인들잇는곳에가서사름을다리고와예수들잡으려하는줄은알지못하더라 유대 음식을밧고급히나가니새 임의저무렷더라

예삼십사장 만찬먹는강론

절일음식을먹을때에 예수닐으샤되나 다시이절음식을먹지아니하고

몇가지 일을 응험후에 하는 나라에 잇서 다시 먹으리라 하시고 썩을 취하
 야 축슈하시고 혼조각석 썩혀 문도들을 주시며 날의 사티이느나의 몸이라니
 희를 위하시며 여낸 거시니 이를 인하시니 이를 생각하시고 또 잔을 취하시
 이고 치하시고 날의 사티이느나 신약의 피라 못사름을 위하시며 흘린 거시니
 타나 너희게 날의 노니 이제로 브터나 다시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리니 이
 후에 나 너희로 더 부러하늘 아바님 나라에 잇서 신션 혼포도주를 마시리라
 하시고 모도 찬미 혼후에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데삼십오장 예수 문도들 분부하시므로 사랑하시라 하시니 강론

예수 데즈드려 날의 사티쇼즈야나 아직 잠스간 너희와 혼며 하시니 너희
 장 초나를 초즈터나 의니 르는 곳에 너희 능히 너지 못하시라 하시고 또 날의
 사티너희 맛당히 서로 사랑하시기를 나 너희를 사랑함 또 치하시라 만일 서로
 사랑면 사름들이 즈연너희가 나의 데즈니 줄을 알나라 하시고 또 날의 사티나
 부성 혼후에 너희보다 몬져 가리리에 가리라 하시고 또 날의 사티 오늘 밤에

훈의 전언

기림구

너희나를 위하야 미혹함을 받으리라 하시니 피득이 날은 티뭇사름이 다 미혹
함을 받을지라도 나는 미혹지 아니리이다 예수님 날은 샐티나 실노너희께
날은 노니 오늘 밤을 기전에 너 세 번 나를 모른다 하리라 피득이 날은 티나
| 주와 함께 죽을지언당나 | 반드시 주를 모른다 아니리이다 하며 모든 문도
| 또 환이 곳치 말하노니라 예수님 | 또 말씀을 내어 문도를 위로 하야 날은 샐티
나 | 이제 나를 보내신 아바님 쟈로도라 가려 하거늘 너희나 드려어는 곳으로
가는 노 못논이 업스니 다만나 | 이를 말함으로 배너희 몸속에 근심만 하리
라나 | 실노너희께 고하노니 나 | 가면 너희로 하야 금유익 할거시잇는나
아니 가면 안위 할자 | 오지 아니 할거시오나 | 가면 곳안위 할자를 보내여 오
게 하리라 하시고 이에 나가 괴론시내를 지나 감람산 아래 이르러 동산안
에 드러가니 곳직셔마니라 전에 예수님 | 상문도를 다리시고 그곳에 모히시
니 이러므로 그 악인 유대가 그 지방을 알더라 이 때에 유대어티잇섯는 노더 |
원리 악인들과 함께 잇서 악인의 하인을 거느리고 동산안 회와 예수를 잡으려

할더라

대삼십륙장 직서마니 동산강론

예수 | 직서마니 동산에 니르러 데즈드려 널은 사티너 희는여 기안져스라나
 | 더괴나아가 빌니라 할시고 이에 피득과 아각파약한세데즈를 다리고 가
 은 사티나의 모음이 심히 우민할야 거의 죽을듯할도다 너희여 기잇서 날과
 흠이 가지 말고 안져스라나 논나아가 빌고 저할노라 할시고 데즈를 써나
 좀나아가 싸에 업티여 빌어 글은 사티나의 아바님은 만일 가히 면할만할거
 든이 잔으로 배나를 써나게 할쇼셔 그러나나 | 이 곳치비오나나의
 뜻을 좃고 저함이 아니라도 모지아바님 뜻티로 할쇼셔
 할시고 이에 데즈잇는 곳에 니르러 잠드
 렷숨을 보시고 피득드려 널은 사티엇지너희나와
 흠이 써여 잇지 못할는뇨 서여 빌어 유혹에 들
 면할라 너의 모음은 비록 원할나다 만몸이
 연약할도다 할시니 때에 턴스하
 늘노조차나타나며 예수
 를 힘을 주더라 예수 | 더
 힘써압호개 빌으시니
 썩이출너 피스방을
 곳치싸에 떠러지
 데라 예수 | 또가
 빌어 글은

훈의진언

삼십

샤 더 우리 아바님은 만일이 잔으로 배나를 떠나게 아니 하시고 반드시 날 노함
여금 마시게 하시실 진더 아바님의 뜻을 조참이 을 하니 이다 하시고 다시와 문도
들의 잠들 물보니 그 눈들이 곤한 지라 또 떠나하는 님씩 빌시비는 말은 처음과
곳치 하시고 다시 문도 있는 곳으로 오시니 여전히 자는 지라 예수 | 더 회를 쉰
여님은 샤 더 너 회는 내려나라 때 내려나를 팔자 | 온다 하시 더 너 겨우 이 말
숨을 호흡 하시 허다 한 사름이 동산 안희니 르러 오니 이곳 무리 예수 의 원슈 |
라 손에 칼과 창과 몽치와 등불을 가지고 올 석 유대 압희서 더 회를 가는 리고와
예수 압희니 르러 예수 를 사랑 하는 모양 곳치 입을 맛초니 예수 | 그 뜻을 알으
시는 지라 님은 샤 더 너 | 입 맛초는 레로와 인 즈를 팔녀 하는 나 하시고 피 하지
아니 하시고 님은 샤 더 너 회는 누구를 찾는 님은 더 너 나 살 록 예수 를 찾는 노라 예
수 | 님은 샤 더 내 가 그로라 하시니 이 말을 듣고 허다 한 악인들이 모도 싸에 업
더 지는 지라 그때에 예수 | 몸을 피코져 하시면 가히 피할 실 거시 로 더 즐거 피
치 아니 하시심은 반드시 이에서 악인을 더 신 하여 죽고져 하시심이니라 그 여러 악

언들이 다시 내려나니 예수 1 날의 사되니 희나를 잡고 저 홀진대 그놈은 사롬
 은가히 티로가게 하라 하시니 예수 1 이런 때를 당하여 오히려 그대 즘들을 성
 각 하샤 더 희 티로가게 하라 하시니 이는 참즈비 하신 믿음이니라 때에 피득이
 칼을 썩혀 제스장의 종말케 쓰룰 썩어 그 귀를 버혀 그 악인들을 모도 쳐싸 호고
 저 할거늘 예수 1 날의 사되니 1 칼을 집의 썩즈라 대개 칼을 동하는 자는 칼로
 써 죽는 나라 내는 생각 건대나 1 능히 아바님 썩 빌어나를 위하여 천만 락스를
 보내시게 못 할가 하는 나 만일이 못치 하면 성경에 이일이 잇스리라 할 말을 엇
 지 응험 하라 아바님 썩서 친히 주신 잔을 엇지 마시지 아니 리 오하시니 이는 예
 수 1 죽으심이 곳하는 님 썩서 죽으라 할 심이니라 예수 1 이에 그
 버힌 귀를 곳치시매 피득과 다른 데즈 1 다 예수 를 썩나도 망하고 예수 1 홀노
 악인의 가온대 계시니 그 무리 예수 를 결박하여 가로 살림으로 가니 예수 1 전
 파곳 처 겸 순하고 화평하시더라

예 삼 심 칠 장 피득이 예수 를 알지 못하 다 할 일 강론

훈의 전언

남일

예수롤잡은자들이 그를 고몬져키야바쓰의장인이나쓰압희니르렀다가다
시카야바쓰의집에니르니이는제스장의슈두이라히다흐악인이모도거
모혔는지라피득이멀니예수의뒤흘싸라제스장의집힝랑에드러가숫출보
려하더라피득이그힝랑안에잇서여러사람들과함께불을향하여안자예수
롤브라보며무음에악인들중에나를아논이가업스리라하더니일개계집
이알아보고닐은티이사람이예수와함께하자이라하니피득이무려워하여
즐겨아는데못하고닐은티그사람을모르노라하고힝랑에서나가더니또
계집종이거괴잇는사람들의게닐은티이사람이또하나살룩예수와함께하
자이라하거늘피득이또즐겨아는데못하고밍세하여닐은티나그사람을
모르노라하더니좀잇다가겻히섯던사람이와피득을티하여닐은티나
노녀와흔당이라너말이가리리사사람이오나또하그동산에서너를보
았노라피득이곳밍세를말하여닐은티나너하노말을무어슬닐음인지모
르리로다나실노그사람을모르노라피득이정히말할새에드르매임의

이우는지라 전에 피득이 흥상말하되 예수와 흥상
 및 처잇고저하며 또 혼죽어
 도코치죽으리라 하더니 지금 예수 사
 람의게 잡혀가실때에 임의코치가지
 못하고 또 세번에 수를 모른다 하다가
 뉘우는 소리를 듯고 또 예수 머리
 를도 리켜더를 보심을 보고 예수
 께서 오날 밤 뉘을 기전에 너 세
 번나를 모른다 하리라 하신
 말을 생각하고 입으로 말은 아니
 하나 믿음에 심분우민하여
 밝과 나가 방성대곡하니 이는
 피득이 참예수를 사랑하고
 로그때에 사탄의 미혹
 혼이 되어 예수를 모른다 하다가
 께다 큰매곳크게우니라

대삼십팔장 피랍다강론

예수 그곳에 계셔 피득의 말
 혼을 보시고 믿음에 근심
 하시더라 하다 혼악인
 들은 모양이 늙은범과 스즈
 고 예수는 양과 호신지라
 더하다 혼사람이 모
 도 공회에서 간증을 차자
 예수 죽이고져하되 죄
 목을 엇지 못 혼은 예수
 혼말숨을 터 답지 아니
 하심이라 제스장이 다시
 무려 글이 터너 참하
 는님의 아 들 그리스도
 나 예수 글이 샅터 내
 가그이라 너희 장
 초인 스가 전능의 우

혼의 진언

삼십이

편에 안고 또 하늘로 조차 구름을 타고 오를 보리라 하시니 제사장 이 그 옷을 쓰지며 곧 이르렀지 다시 간증을 쓰리 오너 희는 이 참람한 말을 듣는 노너 희 뜻이 었더 호요 모든 사람이 다 곧 이르 맛당히 죽이리라 하며 두어 사람이 예수의게 침을 밧고 낫출 가리우고 손바닥으로 치며 곧 이르 누이가 너를 쳤음을 알나호더 라 높은 날 아침에 제사장 과 장로 와 선비 와 온 공회가 흠쳐 예수 죽이기를 썩 호코 예수를 결박 하여 드을고 방벽 피랍다 의게 니르니 피랍다 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요 되 답하 여 곧 이르 사되 방벽이 말하엿는 이다 후시니 제사장이여 러가지로 하소호 거늘 피랍다 다시 무르 곧 이르 너 이르지 아모 되 답이 업는 노더 희 너를 치는 거슬 보지 못하는 나 혼되 예수 이르 못 참내 되 답지 아니 하시니 피랍다 이르 이 희 녀어 더 라 유대 국법에 이 절기 마다 모든 백성이 청하 여 혼 죄인을 노는 지라 새에 혼 죄인의 일 흠은 파랍다 니란을 짓는 자로 더 브러 란을 지을 새에 사람을 죽인 자 이르 모든 백성이 말하야 구호 되 저 레되 호 쇼 셔 호 니 피랍다 이르 답하야 곧 이르 너 희 나 드려 유대인의 왕을 노호 라 호는 노 호은 제사

장이 식고 하여 축이 고져 홀을 알미라 제스장이 모든 사롬을 부축하티 출하리
 파랍과 룰노 흐라하니 피랍다 | 다시 못사롬의 게닐너 글으티 그련즉너 희닐
 은노 바유태왕을 엿지하라하느뇨 모든 사롬이 다시 글으티 심즈가에 못박으
 쇼셔 피랍다 | 글으티 더 | 무슴죄를 핑하엿느뇨 모든 사롬이 더욱 불너 글으
 티 심즈가에 못박으 쇼셔하거늘 피랍다 | 여러 사롬 압희나 아가물을 취하여
 손을 써스며 날으티 더 정직하 사롬의 피는 내게 상관업스니 너희 담당하라 빅
 성이 티 답하여 글으티 더 의피가 우리와 우리 손의 게로도 라가리라 하더라
 피랍다 | 빅성의 무옴티로 핑하 고져하여 이에 파랍과 룰노와 주고예 수를 채
 직질하여 심즈가에 못박으라하니 군스 | 신을 고공당으로 드러가 모든 군스
 룰모도 고뵙은 옷슬 남히고 가식으로 면류관을 역거쓰우고 문안하여 날으티 유
 태인의 왕은 평안하쇼셔하며 갈티로 뼈그머리를 치며 침을 밧고 또 꾸러 절하
 여 모든 희롱을 다흔 후에 뵙은 옷슬 벗기고 저기 옷슬 남혀 쓰올고 나가거늘 피
 랍다 | 다시 하다흔 사롬을 티하여 글으티 그 사롬이 무슴히 들이잇느뇨하니

훈의 전언

삼십삼

제스장과장로 | 보고 좃거리려 글으되 심즈가에 못박으쇼셔 심즈가에 못박으
쇼셔 하니 피랍다 | 글으되 너희 스스로 가져가 심즈가에 못박으라 나논 그 혀
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니 유래인이 되 답하되 우리를 법이 잇스니 이 법 되로
흔 죽맛 당히 죽일 거시며 | 스스로 하는 님의 아들이라 하니 이 다 피랍다 |
듯고 더욱 두려워 하여 다시 공당에 드러가 예수 되닐으되 너 | 어 되로 브터 왓
는 노 못교 또 노코져 하더니 오직 유래인이 불너 님으되 만일이 사 례를 노흐면
게 살의 신하 | 아니 오 스스로 왕이 되여 게 살을 되덕 하니라 하니 피랍다 | 그
말을 듯고 예수 를 다 리고 나가 공당에 안즈니 그곳은 돌노 펴는 되 희 빅 티 말
노 얽바다 | 라 피랍다 | 유래인의 게 님으되 너 희 왕을 보라 하니 모든 사 례 이
좃거리 되 브 리고 브려 심즈가에 못박으쇼셔 피랍다 | 님으되 너 희 인 군을 심
즈가에 못박음이 가 하 노 제스장이 글으되 희 살 왕외 에는 우리 다 른 왕이 업다
하니 이에 예수를 못사 례의 게 맞겨 심즈가에 붙치게 하니 모든 사 례 이 스올고
가셔 요 흔 옷 슬 벗기 고 이 왕 옷 슬 님히 더 라 피랍다 | 악인의 뜻을 조차 예수를

못박아 죽이니 극히 악한 일이니 이는 예수의 죄업임을 알고 도허다 한 악인의
뜻을 좃고져 하여 예수를 못박아 죽임이니라

데삼십구장 유대 스스로 죽은 강론

유대에 수를 삼십량은 즈에 파랏다가 후에 예수를 죽을 죄로 덩함을 보코 후회
하여 그 삼십량은 즈를 가지고 제사장과 장로의 게가 말하되 내가 죄업는 자의
성명을 파라 죄를 지었다 하니 제사장들이 굶으되 이는 우리게 무슴 상관이뇨
너 스스로 당하라 유대 그는 즈를 가져 성던에 더지고 쾌쾌히 나가 제목을 매
여 죽으니 유대의 즈결함은 또 한이 극히 악한 일이니 너 맛당히 하는 님셔 더
의 죄를 용서함심을 비는 거시을 흐니라 유대 죽은 후에 그렇 혼이 어티로 갓
는 노샤 한의 게로 갓스니 이곳 디옥이니라

데스십장 십자가 강론 데일단

파일레르에 수를 못박으라 하니 허다 한 악인이 뜻을 쾌히 었은 지라 예비 한
던 십자가를 예수로 하여 금등에 지고 성밖과 나가니 허다 한 악인이 조차 갈 때

훈의 전언

삼십사

예고리내사름서문이 밧흐로 브러오거늘 웃사름이 잡아 십자가를 예수신터
항여 지우고 예수를 좃게 항니 허다 호빅성이 좃고 또 여러 부녀 | 쓰라 가며 흥
곡 항논 지라 예수 | 그 흥곡 흥을 드르시고 도라 보와 글으샤 터야로 살림 부녀
들아 나를 위 항여 울지 말고 오직 너와 너희 손을 위 항야 울나 항시 더라 법 마
당에 니르러 예수로 항여 금 두 손을 펴고 두 다리 를 펴 열 십자 모양을 항여 십자
가우 희 못을 박 더라 예수 |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의 복을 임의 벗기 고 못
박기 를 기드려 군병이 그의 복을 네 사름이 논 호고 오직 항 별 큰 옷시 잇스니 온
흥으로 짠 거시 라이 논 호지 못 항 매 군병들이 제비 항여 호 사름이 가져 가코
예수의 모든 물건은 다 악인의 가져간 바 | 되니라 예수 | 십자가에 돌너 계실
때에 빌어 글으샤 터야 바님 더 사름들의 죄를 샤 항 쇼셔 그 할 바 를 알지 못 항 논
이 다 항시 니라

예스십일장 십자가 강론대 이 단

피랍다 | 예수의 죄목을 십자가 우 희 써 날으 터 유태인의 왕이라 항니 유태인

이 날은 티 희 살 외에 는 또 왕이 업는 이 다 피 략 다 | 굴은 티 나 | 임 의 첫 노 라 여
 러 악 인 이 심 즈 가 에 쓴 죄 목 을 보 고 모 도 머 리 를 흔 들 며 날은 티 너 | 만 일 하 는
 님 의 아 들 이 면 그 십 즈 가 로 조 차 는 려 오 라 하 며 흠 씩 못 박 힌 중 에 흔 죄 인 과 룡
 향 여 날은 티 너 는 그 리 스 도 | 아 니 냐 가 히 즈 과 우 리 를 구 원 하 라 하 니 오 직
 그 향 나 히 책 망 향 여 굴은 티 너 | 형 별 을 밧 으 며 오 히 려 하 는 님 을 두 려 워 아 니
 향 는 뇨 우 리 는 맛 당 히 밧 을 바 | 오 형 흔 바 에 맛 당 향 티 오 직 이 사 름 은 형 흔 바
 | 을 치 아 니 흠 이 업 다 향 고 이 에 굴은 티 주 여 나 라 에 나 아 가 실 때 에 나 를 싱 각
 향 쇼 셔 향 니 예 수 | 굴은 샤 티 나 | 진 실 노 너 의 게 말 향 노 니 오 늘 너 | 반 드 시
 나 와 흠 셔 파 라 디 쓰 로 가 잇 스 리 라 향 시 니 파 라 디 쓰 는 즐 거 온 곳 이 러 라

데 사 십 이 장 십 즈 가 강 론 데 삼 단

예 수 의 모 친 마 리 아 | 예 수 | 장 첫 죽 을 줄 을 알 고 즐 거 십 즈 가 를 떠 나 지 아 니
 향 고 그 것 히 잇 서 예 수 를 보 고 모 음 이 압 흐 며 참 혹 히 녀 이 니 예 수 | 그 모 친 의
 이 곳 처 흠 을 보 고 또 흔 모 음 에 압 흐 며 민 망 히 녀 이 시 더 라 예 수 | 그 모 친 과 그

훈은 전언

삼십오

스탕하는데즈 | 갓가히잇슴을보고모친새닐으샤되부인은보쇼셔이논부
 인의아들이니이다하시고또데즈의게닐으샤되보라이논너의모친이니라
 일노브터이데즈 | 그모친을되시키고집으로도라가더라예수 | 온몸이압흐
 시고열이말하샤닐으샤되나 | 목마르다하시니훈군스 | 잇서히움을취하
 여초에적셔긴타에매여그입에밋게하니예수 | 초를밧고글으샤되일우웠
 다하시고이에머리를굽히고괴운이쓴히지시니낮으로브터신시갓지니르
 도록온싸히어뚝고진동하며성년방장이스스로쓰어지고돌이켜여지며무
 덤이열니며이왕죽은성인들의신태가무덤으로조차나와예수 | 다시살으
 시기틀기드려그신태가성에드러가허다할사룸의게되이니빅부장파홈새
 예수 | 를적희던쟈 | 보고심히두려워하여글으터이논진실노하는님의아
 들이라하더라

데스십삼장 병당강론

때에유대인이예비하는날이라하여피랍다의게청하야그다리를씩거버리

37
라 흠은 죽음을 사밧날에 두지 아니하려 흠이니 이는 사밧날이 금이라 이에 군
스 | 와셔 흠썬 못 박힌 자들의 다리를 썬고 예수의 께 나르라는 임의 그 죽음을
보고 다리를 썬지 안터니 오직 군스 | 창으로 그가 리터 썬지 르니 께 피와 물이
흐르더라 이를 본자 | 기록하였스니 이 기록한 거 손뚝이 오또 그 스스로 말한
터 참이라 한논 거 슬너 희미를 줄아는 나라 이 일을 일우니 성경에 날은 바그
흠개라도 상치 아니라 흠이 응험하였더라

데스십스장 무덤강론

저물매 흠부자 | 아리마디로 조차오니 일흠은 썬스 푸오 예수의 데즈 | 라 피
랍다 의 께 나가 예수의 시테를 구하니 피랍다 | 명한여 주라 한매 썬스 푸가
늘고 정흔 뵈로 싸고 또 나가 더모는 전일 밤에 예수의 께 나가 왔던 자 | 라 몰약
과로 희뵈근을 가지고 와득사 롬이 예수의 시테를 가는 뵈로 향약을 너 허묵거
돌노 과문둔 무덤속에 두니 전에 사 롬이 장스 치아닌 께 이러라 전에 가리리로
브터 예수와 흠썬 온득녀 인이 뒤 흘조차 그 무덤과 시테를 엮더 께 돕을 보고 이

에도라가향과몰약을예비하엿스되사밧날이되매계명을조차긋치더라

예스십오장 예수 | 다시사신강론

사밧날이 지나니 말대랍의 마리아와 아가의 모친 마리아와 살라미그예비하
엿던 향과 기름을가지고와서그시태에바르고져하여사밧첫날일즉이 무덤
에갈시서로말하되누 | 가우리를위하여돌을굴녀묘문을열게하리오호은
그들이심히금이러라갓가히오며브라보니돌을움겼는지라말대랍의마리
아급히피득과약한의게니르러말하되엇던사람이주의시태를그무덤속으
로조차내여갓스니우리는알지못한다하더라여러녀인이또무덤에나아가
그시태를보지못하고심히의심할때에홀연드러스가무덤우편에안젧는되
얼골은번기긋고웃손눈빛긋치흰지라보고놀나니런스 | 글으되놀나지말
나너희나살류예수 | 못박힌자틀찾는나예수 | 다시살아나샤여긋계시지
아니하니너희는그두엇던곳을보고가그데즈와피득의게말하되예수 | 너
희를압셔가리리에갓스니너희는긋과가셔예수 | 일즉너희게닐으신바와

못치맛나라하라그녀인이 무덤에서나와다라가며설고사름의게말을못함
은무셔워함을인함이러라

데스심륙장 마리아막달린의강론

피득파약한이에수의시태가무덤에있지아님을듯고무덤에가불셔약한이
피득보덤셀니하여몬져무덤에니르러굽어그가는뵈만잇슴을보고드러가
지못하니셔문피득이조차니르러무덤에드러가그가는뵈와머리에착던슈
건이홈여있지아니하고말녀각각잇슴을보고약한이또흔드러가보고밋으
나오히려글에닐은바죽음으로다시살니라함을써닷지못하코이에다시집
으로도라가티오직마리아는무덤밖기셔셔을더니을며굽어보니무덤안회
턴스가흰옷슬납고예수시태두엇던곳에안젧스티하나흔머리편에잇고하
나흔발편에잇서닐은티부인은엇지우는뇨하거늘닐은티사름이우리주의
시태롤가져다가어는곳에둔줄을알지못함으로라하고머리롤도리켜보니
등뒤에사름이섯는지라누는줄을모르더니그사름이닐은티부인은엇지을

훈의진언

삼십한

며 누구를 좃치는 요 할 것 놀 마리아 | 그 동산 직 흰 자는 줄 알고 널은 티 만 일 그 티
 우리 주의 시체를 움겨서 든 청컨대 어느 곳에 둔지 말 할라 내가 저가 갓 노라 그
 사 례 이 널은 티 마리아 야 할 것 놀 마리아 | 성음을 듣고 도라 보니 곳에 수 | 라
 글은 티 북 조 여 할 고 붓 들 녀 할 니 예수 | 글은 샤 티 나 를 붓 들 지 말 나 나 | 오 히
 러 나의 아바님 쟈 나 아 가 뵈옵지 못 할 었 스 니 가 셔 나의 동성 들 의 게 널은 티 나
 의 아바님은 곳 너 의 아바님이 오 나의 하 는 님 은 곳 너 의 하 는 님 이 나 아 가 뵈
 옵 겠 다 할 라 할 시 니 막 달 린 의 마 리 아 | 데 즈 들 의 게 도 라 와 주 를 봄 과 주 | 할
 시 던 말 숨 을 고 할 니 데 즈 들 이 밋 지 아 니 할 고 텨 스 의 말 을 드 룬 녀 인 이 또 호 할
 즈 의 게 보 할 려 갈 때 에 길 에 서 예 수 를 맞 나 래 히 살 앓 숨 을 보 고 발 압 희 셔 절 호
 쟈 에 조 품 무 셔 워 할 니 예수 | 널은 샤 티 너 는 무 셔 워 말 나 할 시 고 또 널은 샤 티
 가 셔 나의 동성 의 게 말 할 티 너 희 가 리 리 에 가 있 스 면 가 히 나 를 맞 나 리 라 할 라
 할 서 거 놀 이 말 을 열 호 데 즈 의 게 고 할 니 의 구 히 밋 지 아 니 할 더 라

데스 심 칠 장 두 분 우 강 론

그날에 두데즈 - 호 마을에 가니 일흠은 이마우쓰라야로 살팅에서 아심오리
 니 돌이 가면서 맛난 일을 말하야 슈작 할 때에 예수 - 갓가히와서 흠씨 할 시
 티 두데즈 - 눈이 아득하야 알지 못하니 예수 - 곁으샤 티너 희 할 하며 무슴 일
 을 말하며 무슴 일 노근 심하노 모양이 있는 요하시니 그하나 혼일 흠이 곁리 오
 빛시니 티 답하야 곁으 티너 - 야로 살팅에 새로 온 격이 노엇지 근일에 있는 바
 일을 알지 못하노 요 곁으샤 티 무슴 일이 노 곁으 티너 살 록 예수 의 일이 니 곳 선
 지 되여 하는 님과 못빅성의 압회서 말과 힘 흠에 능 흠이 있다 하야 우리 모든 제
 스장과 관장이 죽일 죄에 붓쳐 심즈가에 못박아 죽였스니 다 만우리는 더이 석
 렬 죽을 속 할 사 롬인 줄을 브 랫더니 이 썩아 나라이 제 일을 일운 지 삼 일인 티 우
 리 중에 두너 인이 우리 례 놀 남게 흠은 더 회아 츠에 그 무덤의 가서 그 시 례 볼 보
 지 못하 고와서 말하 티 던 스가 나타나 그 살 앗다 말 흠을 뜻고 썩우 리 중에 두 사
 롬이 무덤에 가서 과연 녀인의 말 하 바 췌 치 예수 례 보 지 못하 였다 하 니 일 노 인
 하야 의 심이 있는 고로 말하 노라 예수 - 곁으샤 티 미련한 자여 너 희 믿음에 선

저의 말은 바를 더 더 밋는 도다 그리스도 | 맛당히 이 곳치고 칭하고 그 영화에
나아가지 아니하라 하고 이에 마셔로 브터 모든 선지의 글에 므릇 조귀를
르쳐 훈 말을 다스 체히 강론하고 가는 바 마을 이 갖가 오매 예수 | 힘코져
곳치고 하시니 두 사람이 군청하여 글은 더 우리로 좃쳐 류하라 함은 새 저물미러
라 이에 드러가 함쳐 류할시 더 브러 자리에 안즌 후에 석을 가져 좃쳐 류하
주니 두 사람이 눈이 열녀 알갓스매 예수 | 는 득뵈이지 안논지라 두 사람이 서
로 글은 더 길에서 우리로 더 브러 말슴하시며 성경을 강론할 때에 우리
어엇지 열하지 아니하였는뇨 하고 죽시니라 야로 살림에 도라가 열할 때
사람으로 더 브러 모힘을 맛나매 주 | 과연 다시 니러셔 문의 게 나타남을 듯고
두 사람이 또 훈 길에서 맛난 바 일과 석을 췌여 즐제야 예수 | 즐안 일을 고하더
니 말할 때에 예수 | 스스로 그 가온대 서서 글은 사되 너 회는 평안하라 하시니
못사람이 경동하고 무셔 위하 여령 혼을 본가 뜻하니 예수 | 글은 사되 너 회
지 황망하고 믿음에 의심하는 노나 | 손과 발을 보라 이 곳나 | 아니나 나 톨문

40
곳치맛나라 할라 그녀인이 무덤에서 나와 다라가며 설교 사람의게 말을 못함
은무셔 위함을 인함이러라

예스심복장 마리아막달린의 강론

피득과 약한이에 수의시태가 무덤에 있져야 님을 듯고 무덤에 가불시 약한이
피득보덤살니 할여몬져 무덤에 나르러 굶어가는 죄만잇슴을 보고 드러가
지못하니셔 문피득이 조차나르러 무덤에 드러가가는 죄와머리에 샅던슈
건이 흠쳐잇지아니 할고 말녀 각각잇슴을 보고 약한이 또 흐드러가 보고 밋으
나 오허려 글에 날은바 죽음으로 다시 살나라 흠을 썬닷지 못하코이에 다시 집
으로 도라가 되오직 마리아는 무덤밖기셔 서을더니 올며 굶어보니 무덤안희
던스가 흰옷을 입고 예수시태 두엇던 곳에 안젓스되 할나 혼머리편에잇고 할
나 혼발편에잇서 날은더부인은 엇지우는 노 할겨 놀닐은티 사람이 우리쥬의
시태를 가져다가어는 곳에 둔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할고 머리롤도리켜보네
등뒤에 사람이 섰는지라 누는 줄을 모르더니 그 사람이 날은티부인은 엇지를

훈의진언

삼십구

여 누구를 좃치는뇨 할거늘 마리아 | 그 동산적 현자 | 줄알고닐으되 만일 그
 우리 주의 시례를 음경거든 청컨대 어느 곳에 둔지 말하라 내가 가져가겠노라 그
 사롬이닐으되 마리아야 할거늘 마리아 | 성음을 듯고 도라보니 곳에 수 | 라
 굴으터 부즈여 할고 붓들녀 할니 예수 | 굴으샤 터나를 붓들지 말나나 | 오히
 러나의 아바님 쟈나아가 뵈옵지 못하였스니 가서나의 동성들의게닐으되 나
 의 아바님은 온곳너의 아바님이 오나의 하는님은 온곳너의 하는님이 나아가 뵈
 옴갓다 할라 할시니 막달린의 마리아 | 예즈들의게 도라와 주를 봄과 주 | 할
 시던말씀을 고할니 예즈들이 밋지아니 할고 던스의 말을 드룬녀인이 또 할대
 즈외게 보할려 할 때에 길에서 예수로 만나 캐히 살았음을 보고 발압희서 절호
 때에 조곰 무셔워 할니 예수 | 닐으샤 터나를 무셔워 말나 할시고 또 닐으샤 터
 가서나의 동성의게 말할터니 희가 리리에 가잇스면 가히나를 만나리라 할라
 할시거늘 이 말을 열호 할대 즈외게 고할니 의 구히 밋지아니 할더라

예스십칠장 두봉우감론

그날에 두데즈 | 흐마을에 가니 일흠은 이마우쓰라야로살림에서이심오리
 니들이가면서맛는일을말하야슈작할때에예수 | 갓가히와서홈혀할시
 티두데즈 | 눈이아득하여알지못하니예수 | 곁으샤티너희할하며무슴일
 을말하며무슴일노근심하노모양이잇는노하시니그하나흔일흠이글리오
 밧시니티답하여곁으티너 | 야로살림에서로온릭이노엇지근일에잇는바
 일을알지못하노노곁으샤티무슴일이노곁으티너살림예수의일이너곳션
 지되여하느님과못빅성의압히셔말과힘홈에능홈이잇다하야우리모든제
 스장과관장이죽일죄에부쳐심즈가에못박아죽였스니다만우리는더이식
 렬죽을속할사롬인줄을브랏더니이쁜아나라이제일을일운지삼일인티우
 리중에두너인이우리를놀납게홈은더회아춤에그무덤에가서그시태를보
 지못하고와셔말하티던스가나라나그살았다말홈을듯고또우리중에두사
 롬이무덤에가서과연너인의말흔바곳치예수를보지못하였다하니일노인
 항여의심이잇는고로말하노라예수 | 곁으샤티미련한자여너희모음에선

훈의진언

스십

지의 말은 바를 더 더 밋는 도 다 그리스도 | 맛당히 이 못치고 성하고 그 영화에
 나아가지 아니 할라 하고 이에 마셔로 브터 모든 선지의 글에 므릇 저를
 르쳐 할 말을 다 저세히 강론하고 가는 바 마을이 갓가 오매 예수 | 힘코 저
 못치고 하니 두사람이 근청하여 글은 더 우리로 흥겨우라 흥은 재물미러
 라이에 드러가 흥겨우려 하시더 브러 자리에 안즌 후에 썩을 가져 축슈하고 썩여
 주니 두사람이 눈이 열녀 알겠스매 예수 | 문득 뵈이지 안는지 라 두사람이 서
 로 글은 더 길에서 우리로 더 브러 말습하시며 성경을 강론할 때에 우리 마음
 이엇지 열리지 아니 할 것인뇨 하고 죽시니라 야로 살림에 도라 가 열흔데 저 |
 사름으로 더 브러 모함을 만나매 주 | 과연 다시 내려서 문의게 나타남을 듯고
 두사람이 또 흥길에서 만난 바 일파 썩을 썩여 줄 제야 예수 | 줄안일을 고하고 더
 니 말 할 때에 예수 | 스스로 그가 온대 서서 글은 사 더 너 희는 평안 할라 하시니
 못사름이 경동하고 무서워하여 영혼을 본가 뜻하니 예수 | 글은 사 더 너 희엇
 지 황망하고 믿음에 의심하는 노나 | 손과 발을 보라 이 곳나 | 아 니 나 나 룬 문

저 보라 령 혼은 새와 살이 엮는니 너희 보라 나는 잇노라 하시며 이를 말함 하시
코 슈족으로 빼 뵈이시니 예즈 | 너머 즐거워도 헤미지 안코 괴이히 녀일 때
예 예수 | 글은 사티여 괴먹을 거시 잇는뇨 하시니 이에 구은 물고기 흔편을 드
리 때 예수 | 그 압 회서 잡수시고 글은 사티나 | 본 리 너희로 함셔 하시며 너희게
말호 바나를 가르친 거시 다 맛당히 이를 응험함이 니라

예스 십 팔 장 도마 쓰 강론

예수 | 오섯 솔 때 예 열 두 예즈 중 예 도마 쓰라 하시니 사롬이 함씩 잇지 아닌 지라
코로 다 룬 예즈 | 날은 티 우리 쥬를 보 왔다 하시니 글은 티나 | 만일 그 못 박혔던
손을 보고나 | 손가락을 그 자리에 너히 보며 또 손우로 그 엽히 상흔 자리를 문
져 보지 아니 면나 | 밋지 아니 리라 하시니 여덟 날을 지나 예즈 들이 다시 모 쳇
논 디 다 마 쓰 흔 참 예 하시고 문을 닷 쳤더니 예수 | 니 르러 가 온 대 셔셔 글은 사티
너희 평안 하시라 하시고 이에 다 마 의 깨 날은 사티나 | 손가락으로나 | 손을 문
져 보며 너 | 손을 내 미러나 | 엽히 상흔 자리를 문져 보고 밋으라 하시니 도마

42
예스 십 팔 장

예스 십 일

쓰되 답하 여 굴으 터 우리 주 우리 하는 님이 서라 하 니 예수 | 날으 샐 터 너 는 나
들 보 고 밋 으 나 보 지 아 니 하 고 밋 는 자 | 복 이 라 하 시 더 라

예수 십구장 예수 피득의게삼초명하신감론

이 일 후에 다 시 예수 | 예즈의게나타나섯스니 이나타나심은 타이애 리아 쓰
히 변에잇섯느니라 서문 피득파씩씩머쓰라 날 곳는 도 마쓰와 가 리 리에 가 나
사 롱 나 다 나 엘 파 서 비 레 의 두 아들 파 또 두 예즈 | 흥 쟈 잇 더 니 서 문 피 득 이 날
으 터 내 가 고 기 록 잡 겠 다 하 니 못 사 롱 이 날 으 터 우리 도 흥 쟈 가 겠 다 하 고 이에
나 아 가 리에 올 나 그 밤에 아 모 것도 잡 은 거 시 업 더 니 새 벽에 예수 | 못 히 션 는
터 예즈 | 예수 | 즐 을 아 지 못 하 거 늘 예수 | 날으 샐 터 쇼 즈 야 너 희 먹 을 거 시
잇 는 요 하 시 니 터 답 하 터 업 노 라 굴으 샐 터 그 물 을 비 우 편에 처 면 잇 으 리 라 더
회 그 물 을 비 우 편에 처 매 능 히 그 물 을 쓰 을 지 못 흥 은 고 기 만 히 결 닌 연 고 | 러
라 예 수 의 스 당 하 시 는 예즈 약 한 이 피 득 의 게 날 으 터 이 주 | 로 다 하 니 서 문 피
득 이 주 | 라 흥 을 듯 고 버 션 다 가 옷 슬 낚 고 바 다 희 느 리 니 그 흥 은 예즈 는 못 히

서 멀지 아니 할야 거의 이빅여척이나 되는지라 적은비틀러고 고기결넌그물
 을쓰을고못히는려숫불우회고기와씩잇슴을보니 예수닐으샤티새로잡은
 고기두어개가져오라하시니셔문피득이가셔그물을쓰으러못히올니니
 득히결넌큰고기일빅원세개라고기비록만흐나그물은쓰여지지안논지라
 예수 | 닐으샤티와셔쇼반을먹으라하시니대즈 | 감히누 | 요못논사롬어
 업슴은그쥬인줄을알미러라예수 | 석을취하샤모든사롬을주시고기도
 또흐로치하시니예수 | 대즈의게나타나신때가세번재라먹기를다할매예
 수 | 셔문피득의게닐으샤티너 | 나를사랑하논줄을쥬 | 아시논이다닐으샤
 닐으티쥬여그러하시이다나 | 쥬를사랑하논줄을쥬 | 아시논이다닐으샤
 티나의양삿기를먹이라두번재닐으샤티셔문아너 | 나를사랑하논냐닐으
 티쥬여그러하시이다나 | 쥬를사랑하논줄을쥬 | 아시논이다닐으샤티나
 의양을먹이라세번재또닐으샤티셔문아너 | 나를즐겨하논냐피득이그세
 번재무르심을인하시근심하시글으티쥬여무어시던지다알으시논이나

훈의진언

스십이

538
쥬를 즐겨 먹는 줄을 쥬 | 알으시리이다 예수닐 샐티나의 양을 먹이라나 |
진실 노너의 게닐 노니 젊엇슬 때 에스스로 락를 락고 임의로 쥬류 할티 오직
늑으매 손을 내밀고 사롬의 게묵긴 배 되여 아나가 고져 하는 곳에 스올너 가리
라 할시니 이를 말슴 할 심은 피득이 장춧엇더 게 죽음으로 하는 님을 영화케 함
을 그르치심 이니라

데 오십 장 예수 승턴 할 신 강론

예수 | 다시 살으샤 세상에 게 신 제스 심 일에 열흔 데즈 | 가리리에 가서 예수
| 말슴 할 신 바산에 나르러 예수 를 보고 곳 절 할 나 그러나 오히려의 흑 할 논자
| 잇스니 예수 | 압희 나가 굴으샤 티런 디에 모든 권세를 다 나를 주섯스니
그럼으로 너희가 만민으로나 | 데즈가 되게 할고 성부와 성조와 성신의 일흠
으로 뼈 세례 를 베풀며 나 | 흥상너희와 흠썌 후티 세상 마즈 막 날 서지 나르리
라 할시고 또 널으샤 티 굴에 이긋치 말 할 엿스니 그리스도 | 이긋치고 성 할 엿
다가 삼 일 만에 죽음으로 브터 다시 살아 그 일흠을 의탁 할 여회 기와 죄 사 할 논

도록 만국에 전하되야로 살림으로 브러비듯 하리니 너희는 이 일에 간증이 되
 리라 내 | 장차 아바님의 허락 하신 바로 써너 회개 보내리니 다 못 성서에 거
 여 능함이 우흐로 브러너 회개 중을 기드리라 하시고 이에 인도 하여 뵈다 니에
 니르러 손을 들어 죽이시더니 죽이실 때에 처식 구름이 하늘로 조차 나려
 나며 예수 | 구름 속에 계셔 점점 올라가 뵈이지 아니 하느니라 모든 사물이 우
 러러 볼 때에 흰 옷 입은 천사들이 깃히 서서 글이 터너 회개 하지 하늘을 우러러 보
 는 요 예수 | 하늘에 올라가셨스나 후에 다시 이 모양 갓치 반드시느려 오시리
 라 하니 예즈 | 듯고 절하고 심히 즐거야로 살림으로 도라가 향상 성전에 서 하
 는 님을 찬양 하더라

데오 십일장 피득이 옥에 갓 천강론

예수 |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예즈 | 예수의 말씀을 조차야로 살림 성에 니르
 러 악인을 터하 여 날이 터만 일너 회회기 할면 예수 | 즐거너 회를 용서 하시리
 라 하니 었던 사 롬은 임의 예수 틀 살해 흔 거 슬 뒤 웃 쳐 하는 님 써 용서 하 심을 구

훈의 전언

십삼

향고 었던 사 례 은 즐 겨 회 기 처 아 니 향 고 도 로 혀 예 수 의 데 즈 를 또 향 살 해 코 저
향 더 라 쎄 에 회 례 이 칼 노 배 아 각 을 죽 이 고 피 득 을 잡 아 죽 이 코 저 향 야 옥 에 가
도 라 향 니 군 스 | 피 득 을 잡 아 쇠 사 슬 노 얽 어 옥 에 가 도 고 옥 졸 심 례 인 이 직 회
니 피 득 의 벗 이 피 득 이 옥 에 잇 습 을 위 향 야 민 망 향 티 구 원 향 길 이 업 는 지 라 키
스 정 으 로 하 는 님 쎄 빌 어 구 원 코 저 향 여 향 로 밤 에 여 러 사 례 이 향 곳 에 모 혀 하
는 님 쎄 빌 어 고 향 더 니 이 날 밤 에 피 득 이 두 쇠 스 슬 을 슈 족 에 매 고 두 군 스 가 온
대 서 조 으 더 니 향 연 텨 스 가 는 러 와 피 득 을 쎄 와 곶 으 더 니 러 나 라 향 니 임 의 손
에 사 슬 이 버 셔 졌 는 지 라 텨 스 | 곶 으 더 쎄 례 띄 고 신 을 신 으 라 향 고 또 날 으 더
웃 슬 님 고 나 를 조 차 라 향 니 피 득 이 었 진 일 인 줄 을 모 르 고 다 만 조 차 그 직 향 바
문 에 니 르 니 그 문 이 스 스 로 열 니 거 놀 이 에 나 와 향 거 리 를 지나 오 매 텨 스 는 하
늘 노 도 라 가 니 라 피 득 이 거 리 에 잇 서 으 음 에 성 각 향 티 쥬 | 텨 스 를 보 내 여 나
를 구 원 향 시 도 다 향 고 곳 하 는 님 쎄 사 례 향 더 라 피 득 이 마 리 아 의 집 에 니 르 러
문 을 두 드 리 니 그 집 에 여 러 사 례 이 모 혀 못 참 피 득 을 위 향 여 하 는 님 쎄 빌 더 니

호쳐녀 | 엇보아듯다가 피득의 소리를 알고 깃거문을 열고 몬져 드러가 말하
 디 피득이 문밖과 있다 하니 모든 사롬이 밋지 아니하니 놀쳐녀 | 말하 디 춤이
 피득이니 이 때에 피득이 문득 드림을 쉬지 아니 하니 모든 사롬이 문을 여려
 보고 괴이히 녀이니 피득이 손을 흔드러 그 말함을 굿치라 하고 쥬 | 저를 엇더
 케 옥에서 인도 하여 나오게 하신 일을 모든 사롬의게 말하고 또 이 일을 아 각 파
 모든 형대들의게 고 하라 하고 피득이 인하여 다른 곳으로 가더라 아 춤에 니르
 러 여러 군스 | 피득이 어 디로 간 줄을 모르고 심히 두려워 하며 희틀왕이 직 흰
 군스를 명하여 차자 죽이라 하니 맛나지 못하더라

매오십이장 약한의강론

약한이 극히 늙은 때에 니르러 호환약환왕이 잇씨 약한이 하느님의 복음과 예
 수의 말씀을 전하여 이르러 천다 하여 약한을 잡아 군스의 충수 하여 팟마쓰섬에
 니르니 약한이 근심치 아니 함은 하느님이 더와 함쳐서 고하 놀아 바님의 은
 혜와 예수의 사랑함심을 생각 함이러라 호레비 날에 약한이 등 뒤 히셔 무슴소

리나 팔부논 것갓치 남을 듯고 문득 몸을 도리켜 이 누그를 숨히더니 이곳쥬
 하늘노 조차느려 오시니 붉은 빛속에 허다한 영화 | 잇논 지라 약한이 곳싸우
 희썩러 죽은 사람의 모양갓하니 예수 | 손으로 문지시며 글으샤 티무서워 말
 나 나는 이 처음의 처음이 오뎃히 뎃치며 나는 이 영원히 흥상 잇서 비록 죽으나
 다시 살며 티 티로 무궁히 더욱에 죽고 망하논 열쇠를 나 | 맛하노라 지낸 일파
 너 | 지금 보논 열파 장 리 일을 맛당히 글에 쓰라 하시고 쓰닐으샤 티 너는 오라
 나 | 너를 그르쳐 보게 할 리라 하시니 약한이 곳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늘우희
 잇논 룡상을 보니 거기 하는님이 안즈시고 혼줄 무지개 잇서 룡상을 두루고 또
 여러 자리에 안잔 사람이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썼더니 그 사람들이 면류관
 을 버셔 룡상 압희 노코 하는님 파 예수를 찬미하더라 약한이 하늘우홀 보매 혼
 가지도 하는님의 영화갓흐려 하시업스며 단 당에 희와 등불이 업스디 흥상 붉음
 은 하는님의 영광이 희보다 더욱 붉음이 오 흥상 거문고와 찬미하논 소리 들드
 림은 현스 | 흥상 거과 잇서 하는님을 찬미함이 이러 약한이 허다한 일을 모다

보고 문득 뉘스 압회부러 안즈니 뉘스 | 날은 너 나의게 절하지 말고 맛당히 하
 는 너 선택 절하지라 너와 밋션 지들은 모도 못치이도 리를 적희는 자 | 니다 못하사
 롬이니라 주 | 날은 사티 때 갖가 왔스니 이척에 셴지의 예언 할말을 감초지 말
 나 불의 할사 롬은 이 못춤내 불의게 하고 비루 할사 롬은 이 못춤내 비루게 하고
 의잇는 사 롬은 이 못춤내 의잇게 하고 정결 할사 롬은 이 못춤내 정결하게 하야
 상주고 별 줍을도 모지내 | 주 장하는 지라나 | 반드시 빨리와 사 롬의 하는 일
 을 보와 보응하리니 처음과 쏘치 곳이나 | 라나 | 계명을 적희는 자는 반드시
 복이잇서 가히 칭명나 무에 실과 롤엇고 이 성안에 나아 올거시오 다만 못하
 악하고 간사하고 간음하고 강포하고 우상에 절하고 거짓말하는 사 롬은 반
 드시 별하여 성밖과 두리라 하시니 이 성안은 곳던당이 아니라 이는 모도 약한이
 천히 귀로 드르나 | 니너 희어 린은 희들아 너 희던 당으로 가고져 하고 예수 |
 다 육애는 리치심을 면하고져 거든 맛당히 예수의 일흠을 의지하여 하느님
 의 용서하심을 구하고 성신의 도음을 구하며 너의 믿음을 변하여 일절 악한 심

훈의 전언

스십오

각은 브리고 하는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하여 호로엇으리라 약한이 보고 드른
말을 가져 글에 기록하여 신약 쓰히 두니 이곳일 흠이 무시록이니라

데오심삼장 심판일과 강론

어련으히들아 너희 예수 | 장차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줄을 아는 니어는 때
에 오시겠는뇨 너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텨스도 또 호모르고 오직 하는님이
알으시는니라 그 때에 텨스 | 나 팔을 붙어 전에 그리스도를 복종하여 죽은사
름은 반드시 문져 살너 나리키리니 이 사름들은 홀연치석 구름속에 올라 공중
에서 쥬롤 마져 쥬와 홈세 영원히 호곳에 잇게 호고 다시 전에 죽은 사름 돕고 귀
호자와 뇨코 천호자와 바다속에 빠져 죽은 사름이나 김호곳에서 죽은 사름을
의론치 말고 모도 살너 나리키여 예수 | 압회세우고 척을 가져다가 퍼노코허다
호사름의 지은 바요 처아닌 일을 모도 척우희쓰고 더의 힘호바를 보와 척에 귀
독호터로 심판호는 나 사름이 불션호일을 지우매 하는님이 다보시고 사름이
불션호의 스를 두매 하는님이 다알으시는 지라 사름의 눈압희셔 호노일이나

등뒤에서 할 노 일이나 도모 저하는 짐을 속이지 못하는 나라 사람을 하는 것이
 용서할 심이 있스나 이 노예수 | 더 회를 티신 하여 심지가 우회서 죽으심이 나
 하는 것이 었던 사람을 용서하시는 노이 진실 노모 속애 예수 불의 지하고 예
 수를 사랑하는 사람을 용서하시는 나라 이런 사람들을 일홈은 성명척우회
 니 곳 성명문서 | 라 하는 것이 더 회 죄 일을 용서하시고 더 회로 하여 금영원히
 하늘에 머물러 있게 하시는 나라 회 만일 예수께서 회 일을 성명문서에
 쓰고 회게 명령 주시기를 구할 거든 회 맛당히 예수 사랑하고 악한 일을
 위워 할라 만일 사람이 하는 짐을 사랑치 아니하면 하는 것이 더 회를 불속에 더
 지시는 니 이곳 디옥이니 거괴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지라 곳 누워 처하는 짐
 써 용서할 심을 구하여 도미지 못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회 들 아 지 금 회 살
 아 잇슬 때에 요케 하는 짐 죄 빌어 이후에 던 당에 가서 영원 환복을 받고 디옥에
 드러 영원 환고 초를 밧지 아님이 이 나라 의 원하는 바 | 로라

훈의진언

스심륙

48